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2020년도

사업 최종보고서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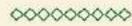
1부: 사업 결과보고

I. 사업 개요

- 1. 사업 소개 9
- 2. 사업 목적 9
- 3. 추진 현황 10
 - (1) 사업추진 체계 및 흐름도 10
 - (2) '12-'20년도 사업 추진 현황 12
 - (3) '20년도 추진개요 및 실적 14
 - (4) 참가국 교육부 성과·비전 공유 15

II. 사업 내용

- 1. 세부 추진 내용 22
 - (1) 유관기관 협의회 22
 - (2) 참가교사 및 배치학교 선발 22
 - (3) 참가교사 연수 22
 - (4) 현지 교육 활동 22
 - (5) 교육활동 보고회 22
 - (6) 교류사업 참가자 지원 웹사이트(NEST) 활용 23
 - (7) 성과분석 23
 - (8) 성과보고회 SSAEM 컨퍼런스 개최 23
- 2. 사업 추진경과 24
 - (1) 파견교사 선발 24
 - (2) 배치학교 선발 24
 - (3) 웹사이트 네스트(NEST) 운영 및 기능 고도화 24
 - (4) 사업 운영위원회 24
 - (5) '12-'19 기참가자 후속 활동 조사 24
 - (6) 2020 온라인 SSAEM 컨퍼런스 영상·사진 공모전 25
 - (7)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 25
 - (8) 초청교사 온라인 교수자료 제작 25
 - (9) 성과분석 25
 - (10) 2020 온라인 SSAEM 컨퍼런스 26



목 차

III. 기타 주요자료

| | |
|----------------------------------|----|
| 1. 주요 기관 담당 부서 및 관계자 명단 | 28 |
| 2. 2012-2019 기참가자 후속 활동 조사 | 29 |
| 3. 언론보도 및 기타 성과 확산 | 35 |

2부: 기타 교사 활동 보고

I. 후속활동 우수사례 발표 모음

| | |
|------------------|----|
| 1. 파견교사 | 54 |
| 2. 초청교사 | 58 |
| 3. 초청 배치학교 | 62 |
| 4. 파견 배치학교 | 66 |

II. 초청교사 온라인 교수자료 제작

| | |
|-----------------------|----|
| 1. 강의목록 | 73 |
| 2. 강의 계획서 | 74 |
| 3. 영상 사진 | 78 |
| 4. 시범 활용 수업 보고서 | 82 |

III. 2020 온라인 SSAEM 컨퍼런스 영상·사진 공모전 우수작품 모음

| | |
|-----------------------------|----|
| 1. 영상·사진 공모전 주요 결과 요약 | 92 |
| 2. 주요 작품(영상) | 92 |
| 3. 주요 작품(사진) | 94 |
| 4. 주요 작품(편지) | 96 |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2020년도 사업 최종보고서

사업 결과보고

제 1 부

I. 사업 개요

II. 사업 내용

III. 기타 주요자료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2020년도 사업 최종보고서
제1부 사업 결과보고



사업 개요



사업 개요

1. 사업 소개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사교류사업」이란?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구.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사교류사업」. 이하, 교육교류사업)은 대한민국 교육부가 주최하고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하, 아태교육원)이 주관하며, 교류 대상국 교육부가 현지 협력주체가 되어 함께하는, 한국-아태지역 국가 양자 간 국제교육교류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몽골과 필리핀, 두 나라를 대상으로 시작한 본 국제교육교류 사업은 지난 8년간 급성장하여, 2020년 현재는 아태지역 7개국(말레이시아, 몽골, 라오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과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특징은 양국 교사가 각 교류국의 현지 학교에 3~4개월 간 배치되어 직접 수업을 실시하고 교육활동을 함께 하면서 현지 배치학교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데에 있습니다. 7개 교류대상국에 파견되는 한국 교사들과 한국으로 초청되어 온 7개 교류대상국 교사들은 모두 각국에서 선별된 역량 있는 교사들로서, 파견된 학교 현장에서 본인의 전공교과, 자국어 및 문화 간 이해 수업을 진행하고 다양한 학교 및 지역 활동에 참여하면서 현지 학생들과 동료교사들과 교류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지 활동과 교류는 파견초청교사 자신들은 물론, 배치된 학교의 동료교사와 학생들의 글로벌교육역량을 향상시키고, 양국 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며, 전반적인 교육활동경험의 공유와 교수학습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사업은 국내적으로는 우리 교육현장에서의 다문화교육, 세계시민교육과 글로벌역량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2009년 OECD DAC 가입 이후 원조 공여국으로서의 국제적 기대와 책임이 커지게 된 한국이 상호호혜적 교육교류 모델을 통해 대상국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근 한국과의 교류가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교사들이 한국 학교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한국 교사들이 대상국 학교에 배치되어 활동함으로써 증진되는 상호이해와 우애는 교육이라는 특수성에 의해 여타 민간외교보다 그 파급효과가 크다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을 기하여 전 세계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교육2030(Education 2030)을 통하여 2030년까지 각국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달성하여야 할 전 지구적 목표를 설정한 바 있는데, 본 사업은 특히 세계시민교육의 증진(교육목표 4.7)과 국제협력을 통한 교사의 질 향상(교육목표 4.c)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사업 목적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의 첫 번째 목적은, “다문화가정 대상국과의 교육교류를 통한 다문화감수성 및 글로벌 소통 능력 진작”입니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함에 따라, 교육현장의 다문화 교육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중·고 재학생 중 다문화가정 학생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09년 전체 학생의 0.35%에서 ’20년 2.8%로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시아 내 교류 급증으로 인해 아시아 내의 상호간 이해의 중요성은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한국과 대상국의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 교사 지역사회의 다문화 인식을 제고하고, 21세기 역량인 글로벌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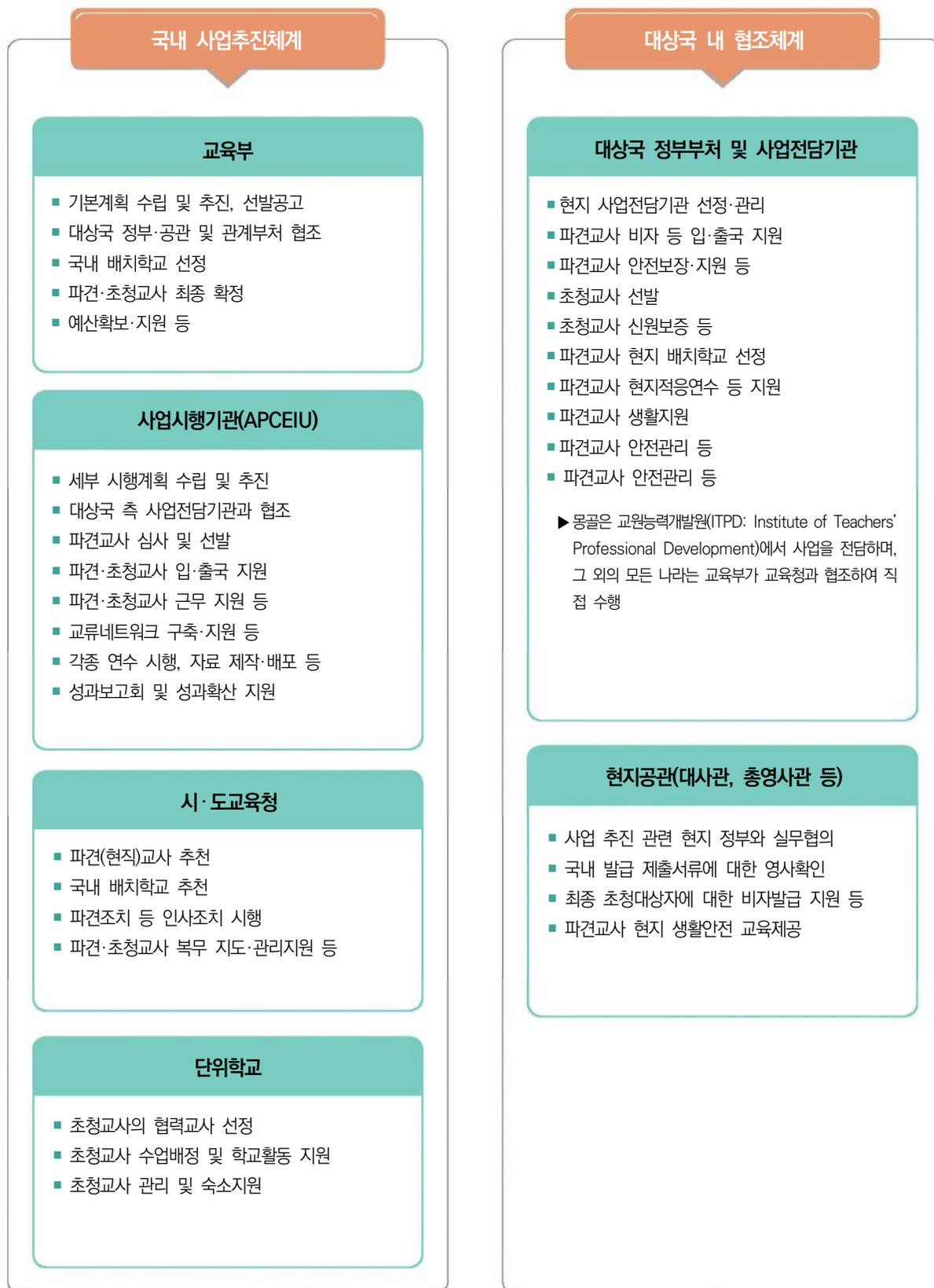
두 번째 목적은, “교사 교육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참가교사들에게 다양한 연수와 워크숍, 현지 학교 및 지역사회 내에서의 교육 활동 및 상호간 교육교류, 프로젝트 수행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수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적자원 교류협력 모델 구축”입니다. 교육교류사업은 기존 ODA 사업 방식과 차별화된 상호간 ‘우수교원 인적자원 교류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교육 ODA 분야의 내실화를 추구하고, 국제 사회 내의 한국의 역할과 기여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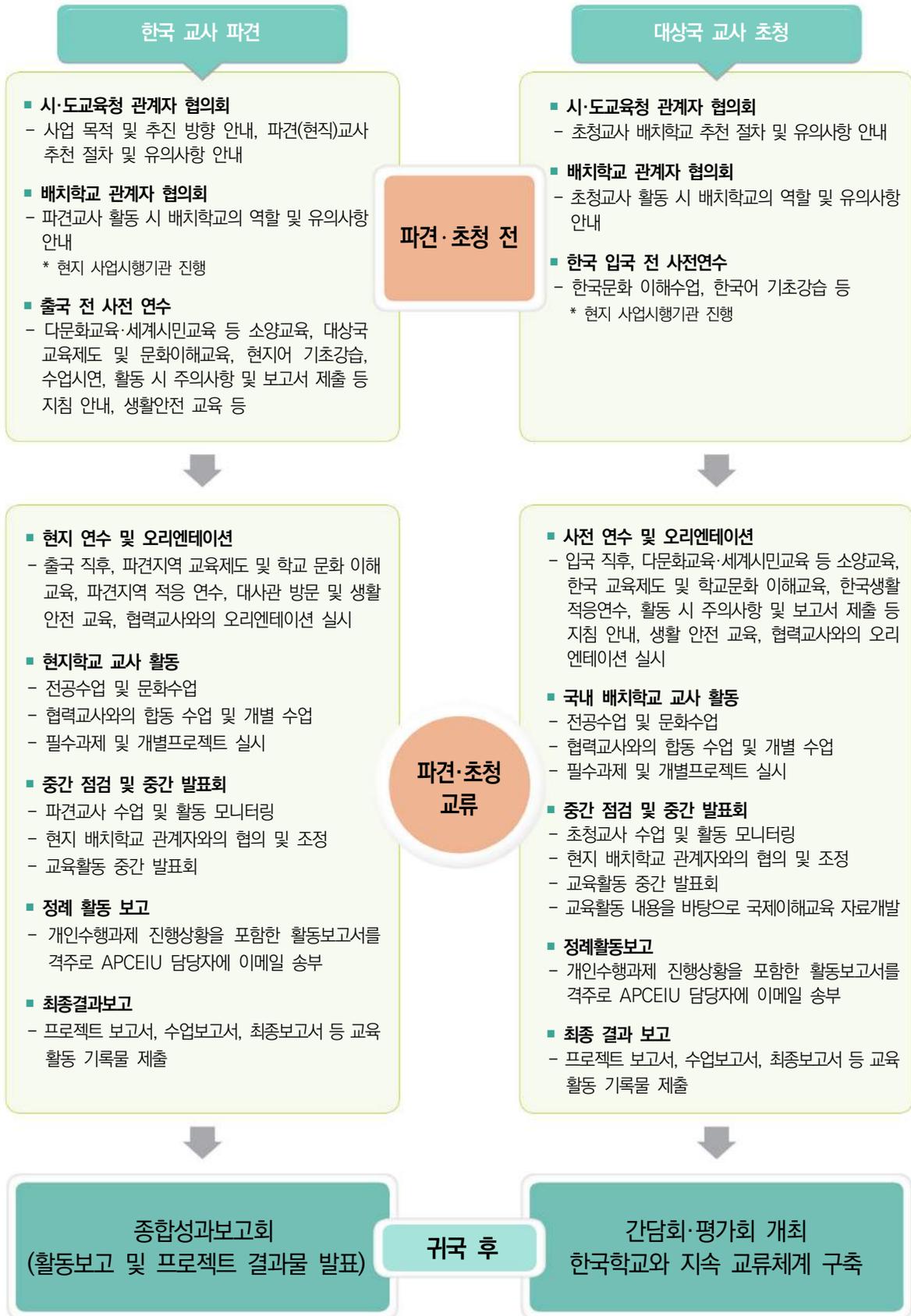
3. 추진 현황

(1) 사업추진체계 및 흐름도

● 사업추진 체계



사업추진 흐름도



※ 상반기 사업은 국가에 따라 출국 전, 현지, 귀국 후 심화연수를 추가 실시하기도 함

I
사업
개
요

다
문
화
가
정
대
상
국
가
와
의
교
육
교
류
사
업
2
0
2
0
년
도
사
업
최
종
보
고
서
업

(2) '12-'20년도 사업 추진 현황

대면 교류

| 대상국 | | | 연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전원 현직) | '19년 (전원 현직) | 합계 |
|------------------------|-----------|---------------|-----|--------------|--------------|--------------|--------------|--------------|------|--------------------|--------------------|-----|
| 대상국가와의 양자 간 교육교류 | 몽골 | 초청 (전원현직) | 40 | 25 | 25 | 22 | 16 | 16 | 16 | 16 | 12 | 172 |
| | | 파견 (전원예비) | 39 | 24 (현직9) | 25 (현직13) | 9 (현직8) | 16 (전원현직) | 15 (전원현직) | 11 | 9 | 148 | |
| | 필리핀 | 초청 (전원현직) | 30 | 24 | 20 | 30 | 20 | 14 | 12 | 20 | 170 | |
| | | 파견 (전원예비) | 19 | 24 (현직12) | 20 (전원현직) | 10 (전원현직) | 13 (전원현직) | - | 14 | 12 | 112 | |
| | 인도네 시아 | 초청 (전원현직) | - | 13 | 15 | 15 | 6 | 10 | 10 | 12 | 81 | |
| | | 파견 | - | 10 (현직2) | 15 (현직8) | 4 (현직4) | 6 (전원현직) | 9 (전원현직) | 10 | 9 | 63 | |
| | 말레이 시아 | 초청 (전원현직) | - | - | 12 | 10 | 6 | 10 | 10 | 10 | 58 | |
| | | 파견 | - | - | 12 (현직7) | 7 (현직4) | 6 (예비1) | 8 (예비3) | 10 | 10 | 53 | |
| | 베트남 | 초청 (전원현직) | - | - | - | 20 | 26 | 26 | 20 | 6 | 98 | |
| | | 파견 | - | - | - | 15 (전원현직) | 26 (전원현직) | 34 (전원현직) | 20 | 12 | 107 | |
| | 태국 | 초청 | - | - | - | - | 12 | 16 | 13 | 20 | 61 | |
| | | 파견 | - | - | - | - | 8 (전원현직) | 10 | 12 | 18 | 48 | |
| | 캄보디아 | 초청 | - | - | - | - | - | 6 | 10 | 16 | 32 | |
| | | 파견 | - | - | - | - | - | 6 (전원현직) | 12 | 14 | 32 | |
| 한국어 교원 파견 | 스리 랑카 | 파견 (한국어강사) | 5 | 4 | 3 | 2 | (사업종료) | | | | | 14 |
| 합계 | 초청 | | 70 | 62 | 72 | 97 | 86 | 98 | 91 | 96 | 672 | |
| | 파견 | | 63 | 62 | 75 | 47 | 75 | 82 | 89 | 84 | 577 | |
| | 소계 | | 133 | 124 | 147 | 144 | 161 | 180 | 180 | 180 | 1,249 | |

 온라인 교류

| 대상국 | 연도 및 인원 | 2020* | | | | 합계 |
|-------|---------|---------|---------|---------|---------|-----|
| | | 국내 교원** | 해외 교원** | 국내 학생** | 해외 학생** | |
| 대한민국 | | 28 | 81 | - | - | 109 |
| 몽골 | | 5 | 2 | - | - | 7 |
| 필리핀 | | 42 | 27 | 263 | - | 232 |
| 인도네시아 | | 22 | 9 | 61 | - | 92 |
| 말레이시아 | | 38 | 49 | 103 | - | 190 |
| 베트남 | | 4 | - | - | - | 4 |
| 태국 | | 7 | 4 | 95 | - | 106 |
| 캄보디아 | | 11 | 2 | 112 | - | 125 |
| 합계 | | 157 | 174 | 534 | - | 865 |

* 교류 내용: 초청교사 온라인 교사자료 제작 프로젝트, 2020 온라인 SSAEM 컨퍼런스

** 분류 기준: 모든 대한민국 교원/학생은 '국내 교원/학생', 해외 교원/학생은 '대상국 교원/학생'으로 분류

*** 다수의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우 중복 집계

(3) '20년도 추진개요 및 실적

2012년부터 진행해온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은 올해로 9년차에 접어들었으며, 2019년까지는 기존 사업 추진체계와 추진 흐름도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유례없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교육 분야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팬데믹은 단순히 국경의 폐쇄와 교육 중단 등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차별과 혐오 등 다양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며, 다문화 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분야는 큰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교육은 교실에서의 전형적인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시간적, 공간적, 물리적 제약이 없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시적으로 대면 교류를 중단한 올해 국제교사교류실은 교육교류를 지속하고,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하여 온라인 교류 기반 확대와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교육교류 가능성 제시와, 교류의 지속가능성 증진 및 한국 및 교류국 내 교육교류 수혜자 확대와 글로벌 교육역량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제교사교류실에서 진행한 '20년도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제작

- **(추진 목적)** 사업 참가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파견국 교육 활동 준비를 위한 양질의 온라인 강의 제공, 필수 강의의 온라인화를 통해 사업 참가자의 강의 접근성 향상 및 반복 학습 체계 구축, 집체 연수의 최소화를 통해 사업 운영의 효율성 도모
- **(주요 내용)** 온라인 강의 기획 및 설계, 온라인 강의 영상 촬영 및 편집
- **(강의 내용)** 세계시민교육과 국제이해교육, 한국교육제도와 정책, 파견국 역사/사회/문화 이해(7개국 대상), 다문화 사회 교사의 역할과 역량,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대상국 학습 환경 이해와 수업 운영 방안
- **(활용 계획)** NEST 시스템에 탑재하여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참가자를 위한 교육 콘텐츠로 활용

● 초청교사 활용 온라인 교수자료 제작

- **(추진 목적)**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교류가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하여, 대상국 교사가 주축이 되어 제작한 다문화·세계시민교육 자료를 통해 국내 학교 교원 및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강의자인 대상국 교사의 글로벌 역량과 온라인 강의 역량을 향상
- **(주요 내용)** 대상국의 기참가 초청교사 중 10인을 선발, 국내 교육과정에 부합하면서도 세계시민교육·다문화교육·문화간이해교육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 영상 강의자료 기획, 개발, 촬영 및 편집. 제작된 강의 영상 중 일부는 기존 사업 배차학교로 참여하였던 국내 초·중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수업에 활용
- **(추진 성과)** 10인의 초청교사와 함께 10개 주제에 대한 총 20차시의 강의 자료를 개발하고 국내에서 활용하는 형태로 팬데믹 상황에서도 온라인 교류 지속, 과학, 사회, 음악, 체육을 비롯한 다양한 과목의 내용을 다루면서도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보전, 환경보호, 인권, 상호문화이해 및 존중 등 세계시민교육·다문화교육·문화간이해교육 내용을 포괄하는 주제의 강의 자료 개발, 국내 10개 초·중등학교에서 총 12차시 영상 활용 수업 진행 및 학교 피드백을 통한 강의자료 유용성 및 적합성 확인, 초청교사 온라인 교수자료 활용 수업 참여 후 국내 학생 다문화 수용성 수준 향상
- **(활용 계획)** 강의 자료 국제교사교류실 유튜브 채널 및 다양한 교육 플랫폼에 교육자료 공유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내 교육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자료 활용 도모

● 2020 온라인 SSAEM 컨퍼런스(사업 종합 성과보고회)

- **(추진 목적)** 사업 참가 교사 및 학교의 성과를 점검하고 공유하는 종합 성과보고회로서 참가자의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향후 사업의 질적 향상 도모 및 사업 효과성 증대와 사업 추진 협력 체계 강화. 2020 온라인 SSAEM 컨퍼런스는 2014년도 SSAEM 컨퍼런스 개최 이래 최초의 온라인 컨퍼런스이자 '12-'19까지 총 8년간의 사업 기참가교사들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사업 성과 공유와 소통의 장
- **(주요 내용)** 교류 국가 교육부 관계자 패널토론, 국내외 교사 후속활동 발표, 파견교사 라이브 토크쇼, 교육활동 결과물 전시, 교육교류사업 홍보, 축하 공연 및 축사 등 개·폐회식, 영상·사진 공모전, 포토 방명록 등 스탬프 미션 활동 등
- **(추진 성과)** '12-'19 기참가교사 약 450명의 온라인 네트워킹, 토론·발표·전시를 통한 사업성과 공유, 교육교류 10주년 비전 수립, 교육교류사업 홍보 등

(4) 대상국 교육부 성과·비전 공유

● 교육교류사업 성과 공유

■ 대한민국 교육부

올해로 9년이 된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은 2012년 사업이 시작된 때부터 꾸준히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2012년 2개 국가로 탄생한 이 사업이 현재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8개국 190명의 교사들을 초청 및 파견하는 사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단순히 참여 교사의 수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참여교사들 및 학생들의 역량을 기르고 교육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설문조사와 분석에 따르면, 초청교사 배치학교의 학생 및 교사들의 다문화 수용성이 꾸준히 성장하였고, 초청 및 파견교사와 배치학교 학생들, 파견교사 배치학교의 동료교원과 초청교사 현지학교의 동료교원까지 사업과 관련된 많은 당사자들의 글로벌 역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교육교류 분야에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물리적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올해에는 파견 및 초청사업을 진행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대신,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함과 동시에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에 참가했던 파견 및 초청교사, 배치학교 협력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후의 후속활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한 교사들은 강의, 자료개발, 각종 교류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후속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초청 및 파견 당시에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뿐만 아니라 활동 종료 후 본국의 학생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로써 본 사업의 파급력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본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다문화 교육을 훌륭하게 지속할 수 있는 수많은 교사들을 배출해낸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육현장의 최전방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사업을 통하여 배우고 느낀 것을 사업이 종료된 후 수많은 학생들 함께 나누며,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0. 아직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유일한 대상국으로서, 본 교육교류 사업이 어떤 장단을 지니고 있는지, 본 교사교류사업을 통해 어떠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라오스

교육교류사업은 라오스의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라오스 교사들이 상호교류를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2030년까지 모든 라오스 국민이 평등하고 공평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아 세계시민으로서 규범을 지키고, 건강하고,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라오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는 라오스 교육체육부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역할이 중요합니다. 라오스의 <교사교육 하위 분야 개발 계획(2021-2025)>도 '교사의 질적 향상에 지속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부는 지속적인 교원능력개발(CPD,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5년 교사 및 교사 교육자 육성 계획>에서 '라오스의 질 높은 교육 달성을 위해 전문적 경험을 공유하고 교류하기 위한 국내외적 협력을 장려'하는 것을 5대 정책 목표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아래 교사들의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과 교육학적 기술 개발이 가능한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Question 1. 본 교육교류 사업이 교사전문성 개발, 교육국제화 등 당국의 어떤 정책적인 맥락 안에서 시행되어 왔으며, 본 사업을 통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말레이시아

교육교류사업은 말레이시아의 몇 가지 정책 목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2013-2025 말레이시아 교육 계획 (Malaysian Education Blueprint)>에서 목표하고 있는 4번째 목표는 교직을 선호 직업으로 끌어 올리는 것인데, 본 교육부는 말레이시아 교사들이 잠재력을 탐구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교수 전문성 개발 마스터플랜 달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교원능력개발(CPD, 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교사들에게 국제적인 경험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2014년부터 시행된 <한국-말레이시아 교사교류사업(KOMTEP)>은 자격이 있는 교사들을 위한 대규모 지속적 CPD 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교사들은 해외 교류 학교 교사로서 훌륭한 활동을 수행하며 가르치는 동시에 배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사업은 말레이시아 교사 표준의 네 가지 교원 능력 영역인 지적 탐구, 교수 능력, 지역사회 기여, 그리고 개인 자질 발전에 집중합니다. 교사들은 한국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역량을 개발하여 말레이시아 교육부는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으며 우리 교육 공동체는 공유와

배움이라는 혜택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교육교류사업의 목표와 말레이시아의 정책 목표가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 달성을 위해 엄격한 참가자 선발, 종합적인 사전 교육 및 훈련 사업, 사업 모니터링 및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몽골

2012년부터 시작된 교육교류사업의 몽골 참가자들은 교사의 교원능력개발이라는 맥락에서 참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과 다른 국가 동료 교사들로부터 배우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교육과학부는 교육교류사업을 교사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몽골 국민들 사이에서 교사 직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도구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몽골 교육과학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과학부는 참가자들이 학교 복귀 후 그들이 배운 정보와 지식 및 기술을 동료들에게 공유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자유학습 5화: 교사 활동가(Merdeka Belajar episod 5: Guru Penggerak)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무 연구, 형성 및 발달 기반의 접근법 및 포괄적인 학교 접근법과의 협력을 통한 교수리더십을 강조하는 학생-중심적이고 전체적인 개발 및 연수 뿐만 아니라 교수법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는 교육 분야의 단체들이 참여하는 학교 활동가(Sekolah Penggerak)의 존재를 장려하고자 합니다. 주요 목표는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교사와 학교장, 교육 인력 등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교육문화부와 관련 단체 간의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학교 활동가(Sekolah Penggerak)의 추진을 위하여 교육문화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1. 교육가 및 교육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
2. 인도네시아의 교육가와 교육 인력의 성격과 수요에 따른 역량강화 모델을 개발 혹은 보유한 기관 확인
3. 학생들의 학습 과정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된 대규모 기관이 실시한 다양한 교육가 및 교육 인력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통합
4. 학생들의 학습과정 및 성과를 보다 큰 규모로 개선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된 교육가 및 교육인력의 역량강화 모델의 확대 및 보급

■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캄보디아 공립학교에 자격을 갖춘 교사들을 공급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교사 정책 및 현직 교사 연수정책 안에서 교사교류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원 양성 및 교사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에는 매년 전국의 교사연수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직 및 예비교사 연수 프로그램, 본 교사교류사업과 같은 국제교류의 기회에 대한 현직 교사의 참여, 자격을 갖춘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을 엄격한 선발 절차를 통하여 교사로 채용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 배치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치는 실습의 기회를 통하여 캄보디아 현직 교사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본 교사교류프로그램에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가치 있는 프로그램에서 좀 더 포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약속을 보여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 태국

태국의 20년 국가전략은 6가지의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세 번째 전략은 인적자원개발에 관련된 것으로 세계시민의식 장려, 개인의 역량 향상 및 학습 개발, 21세기 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학습 과정 개혁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태국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강조하고, 21세기의 교육 수요에 대해 알기 위한 연수 및 훈련 받아왔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언론 정보 및 미디어 리터러시, 문화 간 이해, 협업 팀워크와 리더십,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등과 같은 21세기를 위한 필수적인 기술들을 습득하도록 지도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기 전에 앞서 언급한 기술들을 이해하여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학생들에게 직접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교류협력으로 이어지는 상호이해 조성을 위해 외국과의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교류 프로그램 특히 한국-태국 교사교류 프로그램은 태국의 교육정책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사들의 수업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교수법을 습득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이론 및 실천적인 방법으로 교사들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필리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목표 4.7과 4.c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격을 갖춘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국제협력을 통한 교사 연수는 교사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을 위한 필리핀 전문 기준 (Philippines Professional Standards for Teachers, PPST)은 교사들이 알아야 할 것, 역량을 얻고 학생들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과 가치를 두어야 할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SDGs 4번 목표인 양질의 교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목표달성을 위해 APCEIU는 2019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관계자 협의회를 2019년 2월 21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협의회는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와 제안들을 축적하여 참가자들에게 보다 나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Question 2. 2020 온라인 SSAEM 컨퍼런스는 201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지난 사업의 성과와 사업 참여 이후의 참가자들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사업에 다년간 참여하면서, 그동안 본 교사교류 사업이 당국의 교사전문성 신장과 교육의 질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기참가자의 성과가 사업 참가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당국에서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 혹은 필요할 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경우, 능동적으로 사업 후속 활동을 추진한 교육교류사업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교육 공동체 내외에서 혁신과 모범사례를 공유해왔으며, 이로 인해 사업 효과가 배가되었습니다. 교사들에게는 이 사업이 그들의 경력 발전 및 교원능력개발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한 디딤돌이나 자극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많은 교사들은 수많은 국제 활동, 혁신적인 지역사회 참여, 국제적 교류, 그리고 다양한 주목할 만한 국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후속 활동들은 동료 교사들과 공유되는데, 이는 학생,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세계시민교육(GCED), 특수 교육, 학습공동체, 그리고 교류협력과 같은 분야에서 그들의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교육부는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가 확산되고 지속되도록 교사, 학생, 그리고 학교에 대한 가산점 제도, 수상 기회,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육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몽골

이 사업은 몽골에서 아주 유명한 교육사업이며, 참가 희망자 또한 꾸준히 많은 편입니다. 또한 교사들의 성과에 따라 각기 다른 지방에서 사업 참가자를 선발한다는 측면에서 본 사업은 많은 교사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며, 이는 전반적인 교사들의 성과 향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 인도네시아

다문화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다문화 감수성 함양은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육교류사업은 참가자들에게 이러한 다문화 환경을 조성해주어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교사들이 교수법에 대한 새로운 발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교육 및 평가 방법을 경험하게 해주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쌓게 해줍니다. 이는 교육의 질을 보다 개선하고 강화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교사들이 교육교류사업 이후에도 후속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전적인 후속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후속 활동들이 인도네시아 학교들과 한국 학교들의 협력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 협력의 형태는 문화적 활동, 연구, 그리고 학생 교류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양국의 교사 및 학생들 대상으로 좌담회를 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인도네시아 교사들이 이 사업 참여 이후에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할 것입니다.

■ 캄보디아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하는 캄보디아 교사들은 학생들을 이끌고, 관리하고, 가르치는 능력이 훌륭한 분들로 각자의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은 캄보디아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너무나 필요한 역량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소년체육부는 이 교사들이 교육교류사업 참여 이후 학교에 복귀한 후 어떻게 도전과 발전을 해나가는지 알기 위해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소년체육부는 참가 교사들이 승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학교에 제안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사들의 업무 환경이나 기타 관련 사안들을 파악하기 위해 APCEIU와 공동으로 후속 설문을 진행하여 참가 교사들이 학교와 학생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태국

2016년부터 참여한 교육교류사업에 60명 이상의 태국 교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첫 해의 교육교류사업 이후 더욱 많은 교사들이 이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변 참가국 교사들 덕분에 이 사업의 명성은 더욱 높아져 매년 선발 과정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PISA (OECD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 고득점을 받는 한국에서 한국 교사들과 교류하며 값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 합니다. 또한 한국 교사들이 핵심 과목에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제 이슈를 접목하는 방법을 배워, 태국에 돌아와 가르칠 때 그런 이슈들을 과학, 사회, 영어, 윤리 등의 담당 과목에 반영하며,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수 방식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현대 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태국 학생들은 훌륭한 국제 시민이 되는 법을 알고 있으며 어떤 국제 이슈들이 해결되어야 하는지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세계의 일원임을 느끼고 있으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조금씩 기여하고 있습니다. 태국 교육부 기초교육위원회는 참가 교사들을 모니터링 하고자 글로벌 교육, 교육 및 학습, 그리고 이와 사업과 관련된 모든 내용과 관련된 활동들은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태국 교육부 기초교육위원회는 교사들이 계속해서 후속 활동들을 하도록 관심 갖고 있습니다. 저는 기존 사업 참가 교사들이 다른 태국 교사들에게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하도록 동기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올해는 본 사업에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없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정상화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태국 교사 모두 상호 이해를 높이고 지식과 아이디어를 교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필리핀

필리핀에는 세계시민교육(GCED)에 부합하는 사업을 통해 교사들의 지식과 기술 전수를 보장하고 우선순위 개선 분야를 다루는 Re-entry Application Project(REAP)가 있습니다. 본 교육부는 참가 교사들이 각자 제안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한국에서 돌아올 때에 맞춰 <한국-필리핀 교사교류사업(KPTFP)>에 명시된 바를 기관, 지역, 그리고 학교 단위로 실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귀국하는 교사들은 필리핀 교육협력국을 포함하여 필리핀 교육부 중앙부처 관계자들 앞에서 그들의 사업을 발표합니다. 이 때 승인된 사업은 담당 부서 및 지역 사무소에서 사업의 시행을 지원하고 모니터링하며 사업성과와 효과는 매년 4/4분기에 개최하는 <세계시민을 위한 교사교류포럼>에서 공유됩니다. 작년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함께 국제 세계시민교육 포럼을 열어 대면 교류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Question 3.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는 교육과 국제교류에 있어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경 폐쇄와 교육 중단 등으로 인한 교육교류의 위기와 예기치 못한 변화 속에서도 본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한 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 라오스

저는 단호하게 이 사업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학습의 질과 성공이 학생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인 '교사의 질과 효과'에 기초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따라서 교사들의 지적 능력 향상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돕는 교육교류사업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단순히 다양한 교수 접근법과 새로운 아이디어 및 교수 전략을 탐구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자국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주변 동료 교사들, 배치학교 학생들,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문화적 지식 및 통찰력을 공유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확실히 코로나19 대유행은 우리의 삶과 일상을 처리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끼치고 변화시켰습니다. 코로나19는 물리적 대면 학습에서 온라인 학습으로의 교수법과 학습법의 전환을 가속화하였으며, 다양한 학습 접근법을 혼합하게끔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줌(Zoom) 미팅과 같은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통해 많은 활동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협력한다면 기술을 이용해 끝없는 여정인 교원능력개발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말레이시아

이 사업의 목표와 목적은, 모든 국가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금 특히 중요성을 갖는 세계시민교육 및 국제이해교육의 측면에서 말레이시아와 연관성이 높습니다. 이는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관계자 모두가 양질의 교육 및 교류를 위한 대안적인 수단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국경이 닫히고, 교육 활동에 대한 방해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방식으로 본 사업이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 접촉과 활동이 새로운 형태를 띠는, 이른바 '뉴노멀'이라고 불리는 이 전례 없는 시기는 교수-학습 과정의 방식에 대한 기존의 시선을 바꾸었습니다. 비록 말레이시아와 한국 간 교사의 물리적 교류는 멈추었지만, 온라인을 활용한 교육적, 문화적

교류는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말레이시아와 한국 교사들의 온라인 교수자료 워크숍을 통한 교육 및 국제교류가 가능할 것이며, 결과물은 이후 각 교실에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 실행에 있어서 큰 변화는 불가피하며, 따라서 사업을 다른 형태로 진행하는 것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업참가국이 교육적, 문화적 교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지속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몽골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교육교류사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교육교류사업이 모든 참가자에게 학문적, 사회적 이익이 있고, 몽골 교사들에게 굉장히 좋은 국제 경험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몽골 교사들은 새로운 문화에 대해 이해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수 방법론을 배우기도 합니다. 또한 교사들은 소통 역량도 향상시킬 수 있는데, 단지 영어를 배우는 것 외에도 외국인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귀국 후에는 동료들과 경험을 공유하며 자국 동료들과 소통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교육교류사업은 다양한 교수 방법론과 접근법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을 줍니다. 또한, 한국 교사들뿐만 아니라 필리핀, 말레이시아, 라오스, 그리고 태국 교사들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멋진 기회입니다. 아쉽게도, 현재 상황에서는 미래 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몽골은 온라인 형태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몽골 6개 학교에 러시아연방 교사들을 초청하는 사업을 시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몽골 국경은 폐쇄된 상황이지만 러시아 교사들을 초청해 줌(Zoom)이나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수업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처럼 현대 기술을 이용해 교육교류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 상황을 다차원적인 각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경제적, 보건적 위기일 뿐 아니라, 교육 위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도전은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학습이 교실에만 집중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대면이든 원격 학습이든, 둘 다든, 우리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학습의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웨비나, 워크숍 등의 온라인 학습 모델을 이용하여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의 경험을 통해 온라인 방식이 교사들의 경쟁력 향상에 효과적임을 증명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Guru Belajar"와 같은 대규모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했고 그 결과는 고무적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교사들은 다른 교사들에게 모범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스스로 교육의 주요 문제들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 캄보디아

본 사업은 교사들에게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사업에 참가한 교사들의 영향력을 기다리고 있는 아시아 8개국의 수만 명의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세계 경제를 붕괴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코로나19가 인류의 기반을 무너뜨리도록 둘 수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지혜와 학생들의 지혜 또한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나라, 기관, 사람들과 협력하여 대항하고 있습니다. 의학자들은 코로나19를 막을 백신을 만들 뿐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전략을 짜기 위해 24시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성공할 것이고, 우리도 이 교육교류사업을 지속해야 합니다. 저는 교육 기술의 발전으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교사들이 현대 기술의 도움을 받아 원격 학습 환경에서 이 교육교류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 태국

태국 교육부는 교육교류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산 및 시간의 문제로 인해 태국 교사들이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 사업은 태국과 한국 교사들이 서로 연결하고, 만나고, 알아가고, 배우고, 공부하고, 친분을 쌓기에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국경을 이동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이나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문제는 일시적일 것이고 백신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는 관리 가능한 질병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가거나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터넷 및 집이나 회사에 있는 IT 기기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물론 전자 매체나 도구를 활용하여 지식, 명철,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나 교육교류사업과 같은 교류 프로그램은 팬데믹으로 발생한 어려움들을 ICT 만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것은 친구, 사랑, 웃음, 열정, 공감, 기쁨의 눈물, 그리고 경험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이메일이나 화상 회의를 통해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협력 국가들이 인터넷을 통해 학교 단위의 협력을 확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사' 교류사업 외에 '학교와 학생' 교류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염병 대유행 같은 장애물조차도 우리의 관계를 중단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 필리핀

교육교류사업은 글로벌 사회에서 교사들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 대한 지식 향상이 필요하다는 글로벌 교육의 미션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참가 교사들과 동료 교사들의 교육 역량을 향상시켜 양질의 교육 달성에 기여하고, 교사, 학교, 그리고 지역 사회의 글로벌 역량 및 문화 간 이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현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의 세계 보건 위기는 우리의 교육 관행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들 중 교육-문화 교류사업의 취소는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학교들에 사업의 재개 및 실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참가자 개인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학생들을 학교에 등록하도록 해 줍니다. 올해의 경우, 정상적인 오프라인 사업 운영이 어려웠지만 기술을 통해 온라인상으로 교육교류사업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필리핀은 코로나19로 국경을 폐쇄한 이후부터 한국-필리핀 교사교류 동문회와 함께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세미나를 “groundEd” 또는 “groundEDSeries”라고 부르고 있는데, ‘ground’는 교육에 대한 열정에 뿌리를 두고 정말로 헌신하고 있는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바로 한국-필리핀 교사교류 동문회인데, 그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교사들을, 특히 여기 필리핀에 있는 동료 교사들을 돕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19 대유행이 가져온 기술적 변화를 이용하여 교육 및 문화적 교류를 다시 시작합니다.

● 교육교류사업 중장기 전략 및 비전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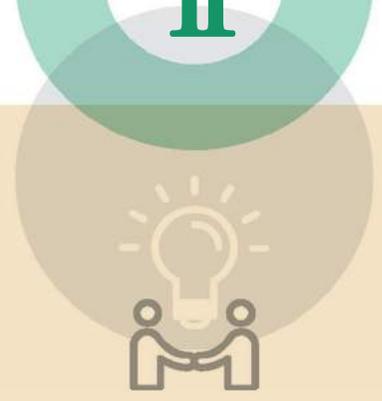
■ 대한민국 교육부

2021년은 우리 사업을 시행한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교류국가와 교사의 수를 늘리며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또한 여러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들을 통해 다양한 교육기회 또한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참석하신 분들이 말씀해주셨듯이 동 프로그램을 통해 파견 및 초청교사 자신들은 물론, 배치된 학교의 동료교사와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 및 글로벌 교육역량을 향상시키고, 공동 수업안 개발 등 교육활동 경험의 공유를 통해 교수학습법의 질 향상에도 기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새로운 1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물리적 국제교류가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이 사업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시·공간의 제약을 넘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안해내고자 합니다. 먼저,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비대면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1년부터는 온라인 사전연수 콘텐츠를 제작배포하여 참여교사들이 학교 배치 전에 받는 사전대면교육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 지속 시에도 교류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국과 상대국가간 온라인 화상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기 참가 교사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온라인 교수자료를 제작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위하여 참여 교사들의 땀과 노력의 산물인 수업·교육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초청 및 파견교사와 배치학교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체계화된 후속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배타주의, 기후위기 등 모든 위기에 맞서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증대되는 이 시기에 우리는 각국 교육부와 협력기관의 도움을 통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교육 분야 변화의 새 도전을 준비하여 미래교육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사업 내용





사업 내용

1. 세부 추진 내용

(1) 유관기관 협의회

국내·외 유관기관 협의회는 사업의 목적 및 구체적 시행 절차를 사업에 관계된 기관들과 공유함으로써,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국내 시·도교육청 협의회는 시·도교육청 담당자가 사업목적 및 체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지하고, 역량 있는 파견교사의 선발과 사업 수행을 위한 행정 협조 등을 위하여 상반기에 실시된다. 또한 초청교사 배치학교 협의회를 개최하여, 배치학교 교장, 협력교사 및 행정담당자를 대상으로 초청교사 배치 전 준비사항과 배치 후 운영 방안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교류대상국 교육부와의 협의회는 국가별로 해당년도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다음 해의 사업시행을 위한 국가별 세부사항(참가인원, 지원 자격, 파견지역, 사업시기 등) 협의를 위해 시행 하고 있다.

(2) 참가교사 및 배치학교 선발

대상국으로 파견되는 한국교사(현직)는 교육부의 선발공고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선발된다. 한국 교육부와 교류대상국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 선발교사 요건에 따라, 파견교사는 한국 교육부가, 초청교사는 대상국 교육부가 선발한다. 선발 교사 요건은 국가별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경력이 5년 이상인 정교사'로서, 말레이시아의 경우 3일간의 캠프를 통해 선발하는 등, 각국마다 교육부가 마련한 면밀한 절차에 의하여 선발된다.

(3) 참가교사 연수

파견·초청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파견 전 사전연수 및 현지적응 연수는, 타지에서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참가 교사들에게 필수적으로 참석이 요구된다. 파견·초청교사는 출국 전, 파견 전 사전연수를 통해 배치될 현지 학교에서 활동하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할 사업 목적 및 참가교사의 역할의 이해, 현지 문화, 외국학생 대상 교수법, 자국어 교육방법, 국제이해교육 등의 강의로 구성된 연수를 이수하게 된다. 이후 파견·초청교사는 교류 대상국 현지에 도착하여, 학교에 본격적으로 배치되기 전에, 현지적응 연수를 통하여 현지 학교 문화, 기초 현지어, 생활안전 교육 강의 등을 이수한다. 두 연수는 참가 교사들이 사업 목적에 맞는 교육성과를 도출하고 원활한 현지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실시된다. 상반기 파견 교사의 경우, 파견 국가 학사 일정에 따라 역량강화 심화연수, 현장 체험형 심화연수, 현지 주제별 연수 등이 추가적으로 실시된다. 캄보디아 파견과 태국 파견의 경우, 출국 전 역량강화 심화연수 및 국내 다문화학교 등에서 다문화교육 현장을 체험하고 수업을 개발·실시하는 현장 체험형 심화연수, 그리고 파견국 현지에서 배치학교 활동 전 약 2주간의 언어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지 주제별 연수를 제공한다. 또한, 몽골 파견의 경우 파견교사들은 배치학교 활동 종료 후 2주간 몽골의 예비교사인 교사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귀국 후에는 재한몽골학교에서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4) 현지 교육 활동

파견·초청교사는 현지 및 국내 학교에서 3-4개월 동안 현지 학생들을 가르치며 교육활동을 진행한다. 파견·초청교사는 배치 직후 1-2주일 동안은 배치학교 교사의 수업을 참관하며, 본인의 향후 교수 활동 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수업 참관 이후부터는 직접 본인의 전공 교과 및 문화, 언어 수업 등을 진행한다. 파견·초청교사 모두 대부분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상국 특성상 영어 수업이 어려운 몽골과 캄보디아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통역사가 수업을 조력하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국내·외 배치학교 협력교사의 역할은 파견·초청교사의 교수활동 계획 및 수업 진행, 학교생활 등을 지원하는 데 있다.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파견 및 초청교사는 격주보고서, 프로젝트 계획서 및 보고서, 수업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을 통해 교육활동 내용을 기록하여 제출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교육활동을 발전시키도록 하고 있다.

(5) 교육활동 보고회

활동기간 중반부에 실시되는 중간보고회, 활동기간 종료 직전 실시되는 최종보고회는 참가 교사의 활동 내용 발표 및 배치학교 관계자의 성과 및 소감 공유로 이루어진다. 중간보고회에서 참가교사들은 활동기간 전반부의 교육성과를 공유하고, 수업 진행 시의 고충이나, 느낀 점 등을

공유하며, 활동기간 후반부에 더욱 발전된 수업 및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얻는다. 활동기간 종료 직전 실시되는 최종보고회에서는, 교사들의 교육활동 과정 및 성과를 모든 참가자와 배치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공유함을 통해, 참가교사들의 경험을 추후 확산 및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된다.

(6) 교류사업 참가자 지원 웹사이트(NEST) 활용

네스트(NEST)는 Network for Schools and Teachers의 약자로서, 본 사업의 참여 학교와 교사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되기 시작하여, 성과분석을 위한 설문 실시, 보고서 제출, 자료 공유, 통역 관리 등 사업성과 확산을 위해 활용된다. 또한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은 네스트(NEST)가 지속적으로 본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교와 교사들의 온라인 교류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0년도에는 NEST의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 구축을 위한 화면 개선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관리자 페이지 기능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2021년도부터 사업 참가자 사전 연수를 위한 온라인 강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졌다.

(7) 성과분석

2012년도에 사업이 시작된 이래,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2014년부터 매해 사업 성과분석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기존의 사업 성과분석은 다문화 수용성 개선도 측정과 글로벌 역량 향상도 측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대면 교류가 어려웠던 2020년에는 기존의 분석 형태를 벗어나 더 다각적인 관점에서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성과 분석을 위한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2가지 연구를 통해 기존 사업을 점검하고 중장기적인 성과를 분석하였다. 2016~2019년도 다문화수용성 개선도 종합분석을 통해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결과 추이와 영향요인을 살펴보았으며, 2017~2019년도 기참가교사의 글로벌 역량 측정을 통해 사업 참가 이후의 사업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금년도 사업 성과로는 대상국과의 온라인 교류 수업에 참가한 국내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성 개선도를 측정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 성과평가모형 개발 연구를 통해 신규 성과지표 도출을 위한 예비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원화되어있던 사업 성과지표를 통합하고, 다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도출하고자 한다. 해당 연구는 2021년에 후속 연구를 통해 신규 성과지표를 최종 개발할 예정이다. 이러한 성과분석 연구는 교사교류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8) 성과보고회 SSAEM 컨퍼런스 개최

쌈 컨퍼런스(SSAEM Conference)의 SSAEM은 Sharing Stories of Asia-Pacific Education Movements의 약자로, 본 컨퍼런스는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최종성과보고회이다. 2020 온라인 쌈 컨퍼런스는, 2012년부터 지난 9년 간 교육교류사업에 참가한 내외국인 교사들의 사업 참가 경험 및 후속 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참가교사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온라인 소통공간으로 운영되었다. 교류국 및 한국 교육부 관계자, 시도교육청 관계자, 2012~2019 사업 참가 국내외 교사, 다문화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전문가가 참여한 2020 온라인 쌈 컨퍼런스에서는, 약 450여 명의 참가자가 소통하며 서로의 교육활동 경험을 나누었다. 교류국 교육부 관계자의 정책적 성과 공유를 위한 패널토론, 참가교사의 생생한 파견 경험을 나눈 라이브 토크쇼, 국내외 교사 26명의 후속활동 발표 뿐 아니라, 참가 교사 교육활동 전시관, 교육교류사업 홍보관 등 교육교류사업에 관심 있는 교사 및 교육가를 위한 세션도 운영되었다. 2014년부터 매해 개최되어 왔으며, 2020년도에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된 쌈 컨퍼런스는, 사업 참가국의 모든 교사가 자유롭게 소통하며 글로벌 교육활동을 공유하는 장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II
사
업
내
용

다
문
화
가
정
2020년
대
상
국
가
와
의
사
업
최
종
보
고
서
업

2. '20년도 사업 추진 경과

(1) 파견교사 선발

- 기 간
 - 접수: 19. 12. 9 - 20. 1. 2
 - 서류심사: 1. 13
 - 면접심사: 1. 15 - 16
 - 합격자 발표: 1. 17
- 선발대상 : 1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초·중등 현직교사
 선발결과 : 라오스 3명, 말레이시아 10명, 몽골 10명, 인도네시아 8명, 캄보디아 16명, 태국 19명, 필리핀 5명
 총 71명

(2) 배치학교 선발

- 일 자 : 1.20
- 주요내용 : 시·도교육청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선정 기준과 대상국 요청에 맞추어 '20년도 초청교사 배치학교 42개교 선정

(3) 웹사이트 네스트(NEST) 운영 및 기능 고도화

- 기 간 : 4월 - 5월
- 주요내용
 - 교류사업 웹사이트 운영을 통한 초청 및 파견 활동 지원·관리
 - 교사 활동 결과물 및 통역 관리 기능 향상
 - 설문 및 보고서 관리 기능 개선

(4) 사업 운영위원회

- 기 간 : (1차) 5.14 (2차) 11.5
- 장 소 :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 참 가 자 : 운영위원 5명, 아태교육원 담당자 등 총 12명
- 주요내용 : '20년도 사업 변동사항 및 성과 보고, 사업 수행방안 자문 등

(5) '12-'19 기참가자 후속 활동 조사

- 기 간
 - 파견교사: 5.28 - 6.11
 - 초청교사: (말련, 인니, 태국, 필리핀) 6.17 - 7.2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6.25 - 7.8
 - 파견교사 배치학교: (말련, 인니, 태국, 필리핀) 6.17 - 7.2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6.25 - 7.8
 - 초청교사 배치학교: 6.17 - 7.2
- 참 가 자 : 2012-2019 사업 기참가자
- 주요내용
 - 2012-2019 사업 기참가자들의 후속 활동 현황 및 향후 후속 활동 계획 조사
 - 사업의 효과성과 목표 달성 정도 확인 및 내·외부 자료 축적

(6) 2020 온라인 SSAEM 컨퍼런스 영상·사진 공모전

- 기 간
 - 접수: 7.13 - 7.26
 - 심사: 7.27 - 7.30
 - 발표: 7.31
- 참 가 자 : 2012-2019 파견·초청교사
- 주요내용
 - 2012-2019 기참가교사들의 행사 참여 기회 확대 및 2020 온라인 SSAEM 컨퍼런스 관심 독려
 - 2020 온라인 SSAEM 컨퍼런스 구성 자료로 활용

(7)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

- 기 간 : 20년 8월 - 21년 1월
 -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8.20 - 9.16
 - 기획 및 설계 : 9월 중순 - 10월 하순
 - 콘텐츠 제작 : 10월 하순 - 12월 하순
 - 검수 및 완료 보고 : 21년 1월 초순 - 1월 중순
- 대상자 :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파견교사 및 초청교사
- 주요내용
 - 온라인 강의 제공을 통한 파견교사의 강의 접근성 향상 및 반복 학습 체계 구축
 - 사업이해도 향상 및 파견 활동 준비를 위한 강의 제공
(다문화 사회 교사의 역할과 역량, 파견국 역사/사회/문화 이해 등)

(8) 초청교사 온라인 교수자료 제작

- 기 간
 - 선발: 8월
 - 강의 콘텐츠 기획: 9월 - 10월
 - 현지 촬영: 9월 - 10월
 - 교육 영상 편집: 8월 - 11월
 - 영상 시범 활용: 10월 - 11월
 - 온라인 영상 배포: 11월
- 참가자: 2012-2019 기참가 초청 교사 10인 및 다문화 및 세계시민교육에 관심 있는 국내 학교 교원
- 주요내용
 - (강의 내용): 한국 교육과정과 일맥상통하며, 세계시민교육·다문화교육·문화간이해교육의 내용을 담은 강의를 대상국 교사 1인당 30분 이내의, 총 2차시의 영상 강의로 제작하여 한국 학교에 수업자료로 배포
 - (시범 활용): 제작한 온라인 교수자료를 기존 교육교류사업 참가학교 중 우수 10개교에 배정. 각 학교 당 1인의 국내 교원이 협력 연구진으로서 참여하여 교수자료를 활용한 수업 진행, 교수자료와 교수자료 활용에 대한 피드백 제공, 교수자료 사용 전후의 학생 설문 진행

(9) 성과분석

- 기 간 : 6월 - 11월
- 참 가 자 : 성과측정 및 교육학 전문가
- 주요내용
 - 다문화 수용성 개선도 측정
 - '16-'19 축적된 데이터의 종합적 분석을 통한 객관적 성과 분석 및 사업방향 진단
 - 초청교사 온라인 교육 교수자료 활용 수업에 참가 전후 국내 학생 다문화 수용성 개선도 측정
 - 글로벌 역량 향상도 측정
 - 개정된 OECD DAC의 평가기준(적절성, 일관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에 따른 사업 분석

- '17-'19 참가 교사의 글로벌 역량 측정을 통한 사업 종료 이후 사업 효과성·지속가능성 분석
- 성과평가모형 개발
 - 종합적 사업성과 측정 및 향후 성과 지표 설정을 위한 평가 모형 개발
 - 성과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예비조사 문항 개발

(10) 2020년 온라인 SSAEM 컨퍼런스(사업 종합 성과보고회)

- 기 간 : 11.24 - 26 (홈페이지 운영: 11.24 - 30)
- 참 가 자 : 7개 교류 국가 교육부 관계자, '12-'19 국내외 참가교사, 시·도 교육청 관계자, 국내외 배치학교 관계자, 사업운영위원회, 기타 교육 분야 전문가 등 약 450명
- 주요내용
 - 활동 사례 발표: 국내·외 참가교사 26명의 사업 참가 이후 후속 활동 발표
 - 라이브 토크쇼: 파견교사 7명의 생생한 파견 경험을 공유한 생방송 토크쇼
 - 패널 토론: 교류 국가 교육부 대표단들의 정책적 사업 성과 및 향후 비전 공유
 - 교육활동 전시관: '12-'19 기참가교사들의 교육교류사업 활동 결과물 전시
 - 공모전 전시관: 영상·사진 공모전 참가자들의 출품작 전시
 - 교육교류 홍보관: 교육교류사업에 관심있는 교사 및 학교 관계자를 위한 사업 홍보관
 - 포토 방명록: 참가교사들의 온라인 네트워킹을 위한 방명록
 - 스탬프 투어: 홈페이지 참여 독려를 위한 스탬프 미션 액티비티, 참가확인서 발급



기타 주요 자료



기타 주요 자료

1. 주요 기관 담당 부서 및 관계자 명단

| 분류 | 주요기관 | 담당 부서 | 관계자 | |
|---------|------|---------------------------|--|---|
| 주최 / 주관 | 대한민국 | 교육부 | 교육국제화담당관실 안주란 과장 유지선 사무관 | |
| |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국제교사교류실 임원진 실장 배현주 부팀장 (라오스) 최민영 전문관 (말레이시아) 김지아 전문관 (태국) 김주영 전문관 (캄보디아) 송여진 전문관 (몽골) 김민솔 전문관 (필리핀) 이지민 전문관보 (인도네시아) | |
| 대상국 | 라오스 | 교육체육부 | 교사연수국 Keth Phanlack 국장 유네스코 라오스위원회 Ovilouth Souksavat 사무관 | |
| | | 교육부 | 교원양성과 Rosli Yacob 차장 Ismariwan Shamsudin 사무관 | |
| | 몽골 | 교육문화과학체육부 | 유아교육국 Myagmar Jadamba 국장 국제협력국 Oyunbileg Oirov 사무관 | |
| | | 교육문화부 | 교원인적관리과 Soesilo 과장 Siti Ubaidah 사무관 | |
| | 캄보디아 | 교육청소년체육부 | 기초교육국 Mok Sarom 부국장 Kun Ren 사무관 | |
| | | 교육부 기초교육위원회 | 대외협력과 Yupha Iemsanguan 과장 Darakorn Phensiri 사무관 | |
| | 필리핀 | 교육부 | 국제협력과 | Margarita C. Ballesteros 과장 Jaymee Carreon 주무관 |

2. 2012-2019 기참가자 후속 활동 조사

① 추진 배경 및 목적

2012-2019 기참가자 후속 활동 조사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본 사업의 참가자로 활동한 국내·외 기참가자들을 대상으로 (1) 다문화사회 속 세계시민으로서의 인식, (2) 사업 활동 참가 이후 주요 변화, 그리고 (3) 후속 활동 경험과 현황 및 계획을 전수 조사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적인 영향력과 효과성 분석 및 이를 통한 자료 축적 및 기참가자들 간의 지속적인 교육교류 네트워크 마련을 위해 추진되었음.

② 조사 대상

- 2012-2019 파견교사(563명)
- 2012-2019 초청교사(672명)
- 2012-2019 파견교사 배치학교(204개교)
- 2012-2019 초청교사 배치학교(341개교)

③ 조사 절차

- **조사 방법:** Google 설문지 활용한 온라인 조사 실시함.
- **조사 언어:** 대상 국가 사정에 따라 조사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현지 언어(몽어, 크메르어, 베트남어) 번역을 통해 내용 수집함.
- **조사 기간**

| 대상 | 시작일 | 종료일 | 일수 |
|------------------------|---------------|---------------|-----|
| 파견교사 | 2020.05.28(목) | 2020.06.11(목) | 15일 |
| 초청교사 배치학교 | 2020.06.17(수) | 2020.07.02(목) | 16일 |
| 말련·인니·태국·필리핀 초청교사 | | | |
| 말련·인니·태국·필리핀 파견교사 배치학교 | 2020.06.25(목) | 2020.07.08(수) | 14일 |
| 몽골·캄보디아·베트남 초청교사 | | | |
| 캄보디아·베트남 파견교사 배치학교 | 2020.06.29(월) | 2020.07.10(금) | 12일 |
| 몽골 파견교사 배치학교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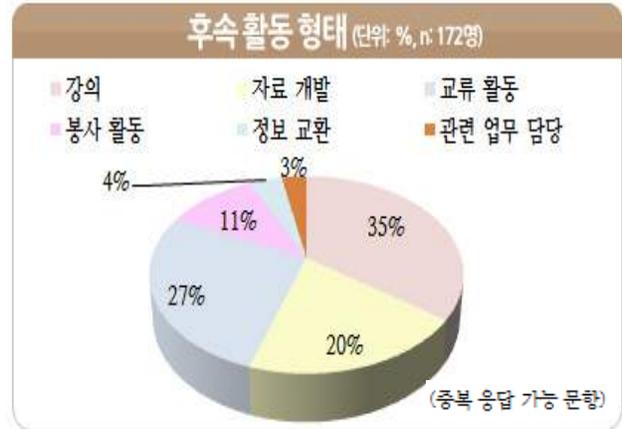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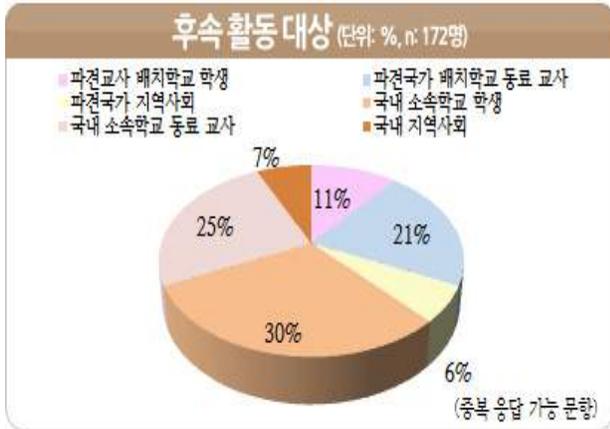
④ 조사 내용

| 파견교사 | 초청교사 |
|--------------------|--------------------|
| 설문 응답자 정보(9개 문항) | 설문 응답자 정보(9개 문항) |
| 후속 활동 현황(8개 문항) | 후속 활동 현황(8개 문항) |
| 향후 후속 활동 계획(3개 문항) | 향후 후속 활동 계획(3개 문항) |
| 파견교사 배치학교 | 초청교사 배치학교 |
| 설문 응답자 정보(8개 문항) | 설문 응답자 정보(6개 문항) |
| 후속 활동 현황(8개 문항) | 후속 활동 현황(8개 문항) |
| 향후 후속 활동 계획(5개 문항) | 향후 후속 활동 계획(3개 문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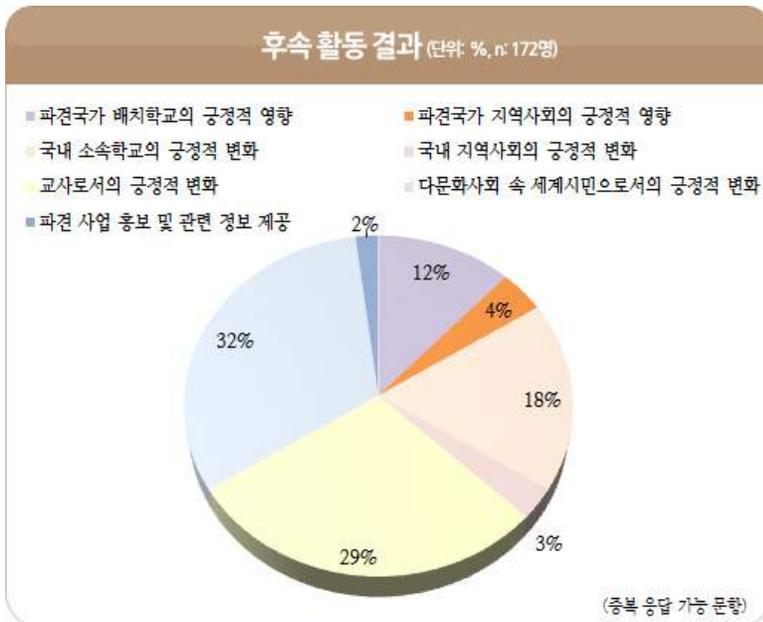
주요 조사 결과

(1) 2012-2019 파견교사

- 응답자는 대상자 563명 중 235명으로, 약 42%의 응답률을 보였음.
- 파견 활동이 귀국 후 교직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99.6%임.
- 파견 활동 이후 후속 활동 진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73%임.
- 주요 후속 활동 대상은 '국내 소속학교 학생'이 약 3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국내 소속학교 동료교사' 약 25%, '파견국가 배치학교 동료교사' 약 21% 순임.
- 주요 후속 활동 형태는 '강의'가 약 3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교류 활동' 약 27%, '자료 개발' 약 20%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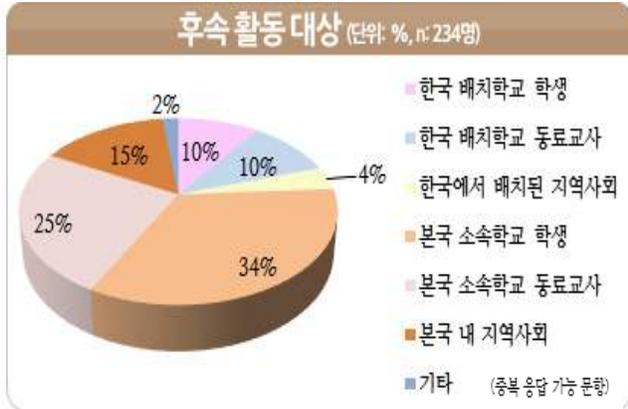


- 응답자들은 후속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로 '다문화사회 속 세계시민으로서의 긍정적 변화'가 약 32%로 가장 높았다고 응답하였음. 이어 '교사로서의 긍정적인 변화' 약 29%, '국내 소속학교의 긍정적인 변화' 약 18% 순임.
- 전체 조사 응답자 중 약 89%가 향후 후속 활동 계획이 있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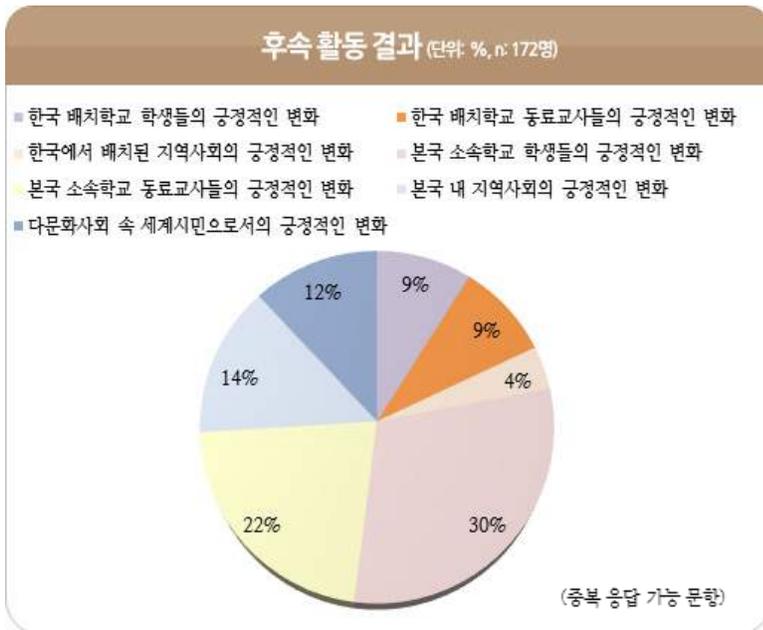


(2) 2012-2019 초청교사

- 응답자는 672명 중 262명으로, 약 39%의 응답률을 보였음.
- 초청 활동이 귀국 후 교직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97%임.
- 초청 활동 이후 후속 활동 진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89%임.
- 주요 후속 활동 대상은 '본국 소속학교 학생'이 약 3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본국 소속학교 동료교사' 약 25%, '본국 내 지역사회' 약 15% 순임.
- 주요 후속 활동 형태는 '강의'가 약 3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자료 개발' 약 26%, '교류 활동' 약 19%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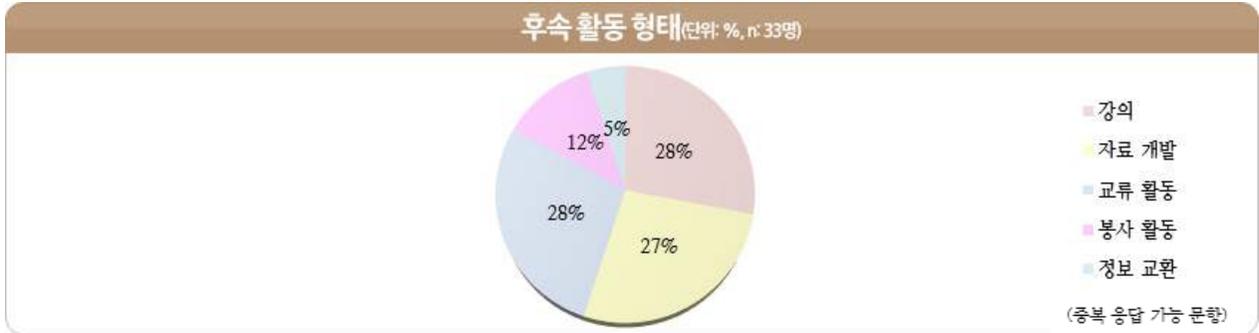


- 응답자들은 후속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로 '본국 소속학교 학생의 긍정적인 변화'가 약 30%로 가장 높았음. 이어 '본국 소속학교 동료교사의 긍정적인 변화' 약 22%, '본국 내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 약 14% 순임.
- 전체 조사 응답자 약 97%가 후속 활동 계획이 있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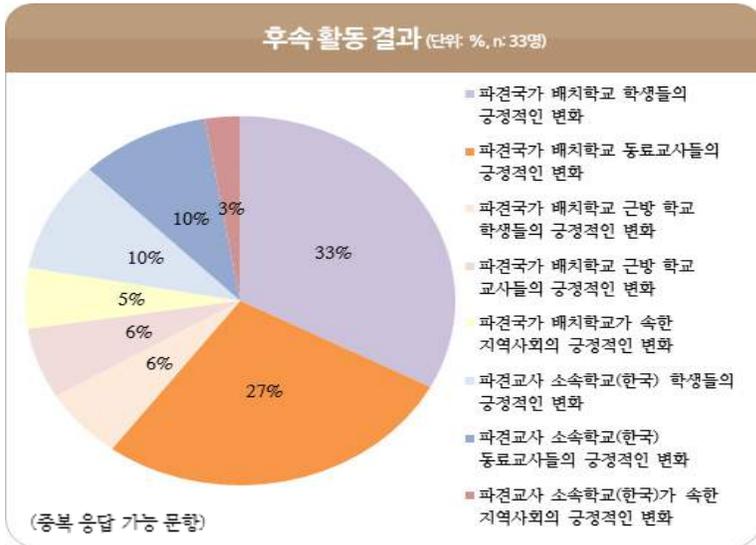


(3) 2012-2019 파견교사 배치학교

- 응답자는 대상 204개교 중 47개교로, 약 23%의 응답률을 보였음.
- 파견교사 배치학교 활동이 해당 배치학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98%임.
- 파견교사 배치학교 활동 이후 해당 배치학교에서 후속 활동 진행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63%임.
- 주요 후속 활동 형태는 '강의'와 '교류 활동'이 각각 28%로 동일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자료 개발' 약 27%, '봉사 활동' 약 12%, '정보 교환' 약 5%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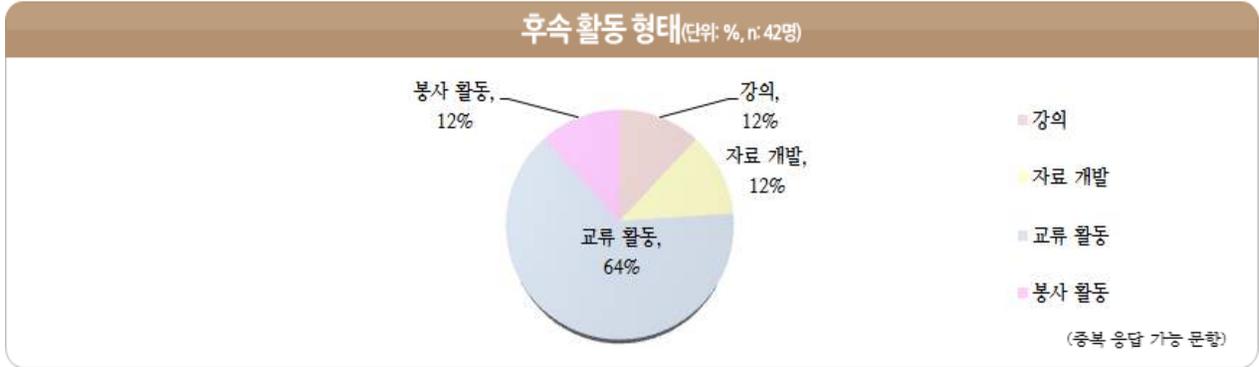


- 응답자들은 후속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로 '파견국가 배치학교 학생들의 긍정적인 변화'가 약 33%로 가장 높았음. 이어 '파견국가 배치학교 동료교사들의 긍정적인 변화' 약 27%, '파견교사 소속학교 학생들의 긍정적인 변화'와 '파견교사 소속학교 동료교사들의 긍정적인 변화' 모두 약 10% 순임.
- 향후 약 88%가 후속 활동 계획이 있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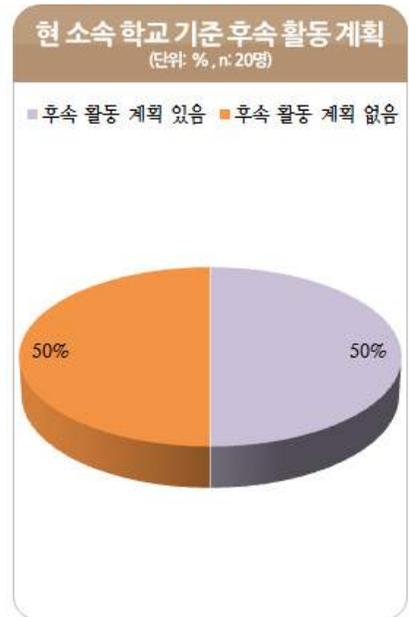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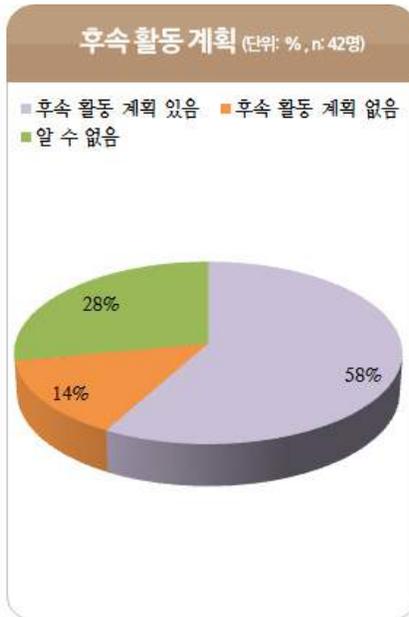


(4) 2012-2019 초청교사 배치학교

- 응답자는 대상 341개교 중 38개교로, 약 11%의 응답률을 보였음.
- 초청교사 배치학교 활동이 해당 배치학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응답한 비율은 100%, 전원이었음.
- 초청교사 배치학교 활동 이후 해당 배치학교에서 후속 활동 진행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71%임.
- 주요 후속 활동 형태는 '교류 활동'이 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자료 개발', '봉사 활동', '강의'가 약 12%로 동일하게 나타났음.



- 응답자들은 후속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로 '국내 배치학교 학생들의 긍정적인 변화'가 약 32%로 가장 높았음. 이어 '국내 배치학교 교직원들의 긍정적인 변화' 약 30%, '현지 초청교사 소속학교의 긍정적인 변화' 약 20% 순임.
- 향후 약 58%가 후속 활동 계획이 있다고 응답함.
- 현재 소속된 학교와 사업 참여 당시 활동한 초청교사 배치학교와 다르다고 응답한 인원(20명) 중, 현 소속 학교에서의 후속 활동 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약 50%임.



● 결론 및 시사점

○ 후속 활동 조사 통한 사업의 효과성 및 목표 달성 정도 확인

- 응답 결과를 통해 '인적 교류를 통한 교육 ODA 프레임워크 구축'이라는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참가자들의 후속 활동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음. 기참가자 대부분이 본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귀국 후 교직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응답하였으며, 많은 기참가자들이 단순히 일회성 사업 참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본 사업의 경험을 교직 생활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또한 전근 등의 이유로 소속학교가 달라진 경우에도 새로운 현장에서 후속 활동을 계획 및 진행하는 경우도 꽤 있음을 확인하여 단순히 사업 참여 당시 소속학교에만 영향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사업의 긍정적인 영향이 전파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배치학교의 경우, 본 사업 참여를 통해 '학교 학생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장 큰 성과로 응답하였음.
특히 초청교사 배치학교의 경우, 국내 학생들 및 교직원들의 긍정적인 변화가 두드러져 본 사업 참여가 국내 다문화감수성 향상을 포함한 상호 이해, 글로벌 인식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음.

○ 후속 활동 조사 자료 활용 계획 및 향후 방향

- 후속 활동 조사 통한 우수 교사 및 사례 발굴, 전문가 풀 활용
- 파견/초청교사 및 배치학교 연수 시 예시 사례 및 자료로 활용 및 각종 자료 개발 시 근거로 활용
- 체계적인 정기적/주기적 후속 활동 조사 실시 및 관리 방안 마련
- 기참가자들과의 사업 참여 이후 지속적인 쌍방향적 협력 방안 마련
- 현지 교육부의 협조 및 후속 활동 관리 네트워크 구축 방안 마련

3. 언론보도 및 기타 성과 확산

● 언론보도 및 기타 성과 확산 목록

| 번호 | 종류 | 매체명 | 보도일자 | 제목 |
|----|------|------------------|------------|---|
| 1 | 인터뷰 | 주몽골대한민국 대사관 | 2020.03.26 | 한-몽 수교 30주년 기념 척트바타르 몽골 외교장관 서면 인터뷰 (원본:https://ikon.mn/n/1u02) |
| 2 | 기고문 | 코리아타임즈 | 2020.07.21 | UNESCO's Asia-Pacific education center marks 20th anniversary |
| 3 | 보도자료 | DepEd | 2020.08.12 | 11 Filipino teachers win awards in UNESCO-APCEIU challenge |
| 4 | 기사 | SunStar Tacloban | 2020.08.15 | Eastern Visayas teacher bags international award |
| 5 | 행사 | APCEIU | 2020.08.20 | Virtual Ceremony Commemorating APCEIU's 20th Anniversary |
| 6 | 기사 | Manila Standard | 2020.08.23 | Tacloban teacher wins award from Asia-Pacific Challenge body |
| 7 | 기사 | 연합뉴스 | 2020.08.27 | 다문화 가정 교사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 개발업체 선정 |
| 8 | 인터뷰 | 연합뉴스 | 2020.10.03 | 임현묵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장 "코로나 19로 세계시민교육 절실" |
| 9 | 인터뷰 | 매일경제 | 2020.10.03 | 임현묵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장 "코로나 19로 세계시민교육 절실" |
| 10 | 인터뷰 | 디지털타임스 | 2020.10.04 | 임현묵 원장 "팬데믹 상황서 세계시민 교육 일정부분 기여" |
| 11 | 행사 | DepEd | 2020.10.30 | 4th Annual Forum on Teacher Exchange toward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원장님축사 |
| 12 | 기사 | 매일경제 | 2020.11.11 | 아태교육원, 24~26일 '2020 온라인 쌤 콘퍼런스' 개최 |
| 13 | 보도자료 | 연합뉴스 | 2020.11.11 | 아태교육원, 24~26일 '2020 온라인 쌤 콘퍼런스' 개최 |
| 14 | 보도자료 | 뉴스에듀 | 2020.11.11 | 2020 온라인 쌤 컨퍼런스, 11.24~26 온라인 시동 |
| 15 | 보도자료 | 경기일보 | 2020.11.11 | 2020 온라인 쌤 컨퍼런스, 11월 24~26일 온라인으로 개최 |
| 16 | 보도자료 | 아시아타임즈 | 2020.11.11 | 2020 온라인 쌤 컨퍼런스, 11월 24~26일 온라인으로 개최 |
| 17 | 보도자료 | 학부모뉴스 24 | 2020.11.12 | 팬데믹 시대, 아태 지역 교육 교류의 새로운 방향 모색 |
| 18 | 기사 | 굿모닝베트남미디어 | 2020.11.14 | 2020 온라인 쌤 컨퍼런스, 11월 24-26일 온라인으로 개최 |
| 19 | 기사 | 금강일보 | 2020.11.15 | 대전 둔산초, 코로나 19 속 비대면 국제교류사업 성료 |
| 20 | 보도자료 | DepEd | 2020.11.16 | DepEd, Korea-PHL Teacher Exchange Program Alumni Association conduct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Forum |
| 21 | 기사 | 캐나다 한국일보 | 2020.11.19 | 다문화교육 살펴보기 - 한국 교육부 온라인 컨퍼런스 |
| 22 | 기사 | MONTSAME | 2020.11.25 | Mongolian representatives participating in 'Sharing Stories of Asia-Pacific Education Movements' conference |
| 23 | 보도자료 | 여성일보 | 2020.12.01 | '2020 쌤 콘퍼런스' 성황리 종료, 코로나 이후 교육교류 가능성 모색 |
| 24 | 보도자료 | 연합뉴스 | 2020.12.01 |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2020 온라인 쌤 콘퍼런스' 성료 |
| 25 | 보도자료 | 헤럴드저널 | 2020.12.01 | 유네스코 '2020 쌤콘퍼런스' ...코로나 이후 교육교류 가능성 모색 |
| 26 | 보도자료 | 국회방송 종합뉴스 | 2020.12.02 | 쌤 콘퍼런스 성황리,이후 교육교류 가능성 모색... 교육 교류 중요성 공감 |
| 27 | 보도자료 | 학부모뉴스 24 | 2020.12.02 | '2020 쌤 콘퍼런스', 코로나 이후 교육교류 가능성 모색 |

언론보도 및 기타 성과 확산 사례

사례 1.

Manila Standard(2020.08.23) Tacloban teacher wins award from Asia-Pacific Challenge body

Home / LGUs / VIZAYAS

Tacloban teacher wins award from Asia-Pacific Challenge body

posted August 23, 2020 at 10:30 pm by

Roland Reyes



Tacloban City—A public elementary school teacher from the Tacloban City division bagged first place in a recent global conference of educators from the Asia-Pacific region.



WINNING TEACHER. Elementary teacher Jejomar Villacorte shows his talent in the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s (APCEIU) Challenge for 2020 Sharing Stories on Asia Pacific Education Movement (SSAEM) Online Conference.

Jejomar Villacorte of Rizal Central School in Tacloban won the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s (APCEIU) Challenge for 2020 Sharing Stories on Asia Pacific Education Movement (SSAEM) Online Conference, earning plaudits from Department of Education (DepEd) regional director Dr. Ramir Uytico.

"Having won in this international competition, Villacorte has proven that Region 8 is great," said Uytico.

"He has now reaped successes from his hard work and determination. Aside from his achievement of being the only one from the region who passed the rigorous screening for the Philippines-Korea Teacher Exchange Programme, he has surpassed my expectations," he added.

The director said he hoped that all teachers in Region 8 "would also find ways to give honor to the Department."

The SSAEM is an annual gathering of various stakeholders and the general public. The event is organized to promote the upcoming 2020 Online SSAEM Conference and provide alumni with a broader range of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the event and to produce a video for the opening ceremony and create valuable educational materials.

It aims to maximize the impact of Asia-Pacific Teacher Exchange by sharing experiences of all Teacher Exchange Programme alumni from partner countries, according to the DepEd.

Earlier, Villacorte was also awarded as one of the outstanding Tacloban City division scholars for participating in the Korea-Philippines Teacher Exchange Programme for three months.

Topics: [Tacloban City](#) ,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 [Jejomar Villacorte](#)

[Philippines-Korea Teacher Exchange Programme](#)

Related stories:

[In Memoriam: Melvin Corpin, 55 An unexpected farewell to a celebrated virtuoso](#)

['Yolanda' victims to lose water by end-April](#)

[Tacloban mayor also denounces Mar comic](#)

More from this Category:

[Razon vows MORE Iloilo investments](#)

[SMC turns over land titles to ex-Talipit residents](#)

[Dar unveils Isabela agri complex](#)

III

기 타 주 요 자 료

사례 2.

DepEd(2020.10.30) 4th Annual Forum on Teacher Exchange toward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임현목 APCEIU 원장 축사

Congratulatory Remarks by Director LIM Hyunmook

Good morning everyone! Warm greetings from APCEIU to you all!

Dear Participants, Undersecretary Nepomuceno Malaluan, Dr. Shahbaz Khan, Mayor Bernard Faustino Dy, President Bert Tuga, Dr. Dorothy Tarol,

I am so pleased to join you for the 4th Annual Forum on Teacher Exchange toward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First of all, I thank and congratulate Mr. Danilo Osorio and his colleagues of the KPTEP Alumni Association for the successful organization of this year's forum. I am sorry that we are unable to see each other face-to-face and enjoy performances like a fashion show that we had last year. But nevertheless I am glad to see you all online this year and I am particularly happy to see you all safe and healthy.

I also convey our deepest appreciation on behalf of APCEIU to the Department of Education, Philippines for its continuing and unwavering support for this annual forum and also for the exchange programme as well.

Dear colleagues and friends,

Let me start by sharing with you a short conversation that I had with Her Excellency Leonor Briones, Secretary of Education last year in Kuala Lumpur. We discussed the GCED curriculum development project and I am happy to inform you that this GCED curriculum development project is now being carried out by President Tuga and his team at PNU for three years from this year. We are expecting that GCED will be reinforced significantly in the national curriculum of the Philippines through this three-year project.

Coming back to the conversation that I had with Secretary Briones, at some point during our discussion, she told me that GCED is not an abstract concept for the Philippines, but a reality, especially for some regions like Mindanao and Visayas.

Her statement was so powerful and even touching that I could not help but decide to make every effort to promote GCED in the Philippines together with the Department of Education. I could not agree more with Mme. Secretary Briones that GCED can and should make an impact in everyday lives of people, especially living in difficult situations.

So I am particularly happy to see you all in this forum to reconfirm our commitment to GCED and discuss our action for GCED, especially in today's challenging times.

As we all agree, GCED is essential for us to overcome today's global crisis. Since pandemic is global, our action to overcome it must be global. Global solidarity and cooperation beyond national borders are crucial.

But unfortunately we are seeing more hate, discrimination, stigma, and exclusion. In a pandemic, no one can be safe while others are not safe. This is so clear and even a three-year old should be able to understand it. But, in reality, people seem to be busy more with stigmatize and hate certain people and countries seem to be busy more with close their borders and blame other countries for this crisis.

So our role as educators is very important. We must not be shaken or lose to the temptation to hate and discriminate certain people or countries but must strengthen our solidarity and cooperation more. When we as educators are strong about solidarity and cooperation, our students and their parents will also take responsible action to overcome this crisis together.

Dear colleagues and friends,

This year, we have been unable to continue our exchange program as we planned. Instead, we have managed to replace it with other projects such as a comprehensive survey on follow-up activities of alumni teachers, making videos on teaching lessons by teachers, and developing online courses for future exchange program participants.

Regarding the survey on follow-up activities, I am pleased to tell you that the Philippines has showed the highest rate of response to our questionnaire. Probably, this is because you have the Alumni Association in the Philippines and it has been playing a key role in maintaining and activating an alumni network. So once again I thank you the Alumni Association for all you have done to promot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Philippines and the other participating countries of the exchange program.

I also very much appreciate the cooperation DepEd has kindly lent to us for the survey and the video making. Thank you so much, DepEd.

Experts are saying that the pandemic will be around us next year. It is very unfortunate, but we will have to cope with this unavoidable reality.

APCEIU is now working on next year's work plan and as for the exchange program, we are considering creating an online platform where participating teachers of the program can exchange lessons and materials. It is our hope that this platform will enable not only bilateral exchanges but also multilateral exchanges among the participating countries. It will become possible that Philippine teachers can exchange lessons not only with Korean teachers but also with teachers in other countries, Cambodia, Indonesia, Malaysia, Mongolia, Thailand and Vietnam.

The pandemic is obviously a great challenge for our exchange program. But it is also an opportunit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By creating an online platform and making the most of it, we will be able to facilitate more follow-up activities and stronger networks of alumni teachers. This will of course be made possible only thanks to you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We count on your common endeavor in the coming years.

Dear colleagues,

We are faced with enormous challenges. But we must not be discouraged and downhearted. Together, we can make our strengths a lot greater and overcome today's crisis. Let's work together!

Thank you.



사례 3.

연합뉴스(2020.11.11) 아태교육원, 24~26일 '2020 온라인 쌤 콘퍼런스' 개최

2020. 12. 9.

MK 뉴스 기사 인쇄하기

MK 뉴스

인쇄하기

취 소

아태교육원, 24~26일 '2020 온라인 쌤 콘퍼런스' 개최

입력 : 2020.11.11 14:00:03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아태교육원)은 오는 24~26일 '2020 온라인 쌤(SSAEM) 콘퍼런스'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아태교육원이 주관하는 콘퍼런스는 '다문화가정 대상 국가와의 교육 교류사업' 성과 보고회를,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온라인으로 연다.

행사에서는 사업 참가 교사 및 학교 관계자가 참여해 '아태지역에서 활동한 글로벌 교사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교육활동 경험과 우수사례, 성과를 공유한다.

24일에는 라이브 토크쇼와 패널 토론 등을 진행한다. 토론에서는 사업 참가국 교육부 대표들이 정책적 사업 효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참가 교사 30여명의 후속 활동 발표와 우수 교육 활동 사례를 모은 온라인 전시관도 마련했다.

2020. 12. 9.

MK 뉴스 기사 인쇄하기

이외에도 아태지역 학교 파견 활동에 관심 있는 교사, 외국 교사 초청 및 다문화 교육에 관심 있는 학교 관계자를 위한 교육 교류사업 홍보관도 운영한다.

최은희 교육부 국제협력관은 "시간적·공간적·물리적 제약이 없는 방식의 교육 수요가 높아지며 글로벌 연대 및 협력의 가치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이번 행사는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교육을 만들어가는 계기"라고 말했다.

임현묵 아태교육원장은 "지난 9년간 아태지역 교육 교류와 협력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한 교사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라며 "올해는 내년 교육 교류사업 개최 10주년을 앞두고 2012~2019년 사업에 참여했던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인다"고 밝혔다.

행사는 온라인 웹 콘퍼런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생중계하며 사전 등록은 오는 16일부터 할 수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s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Ⅲ

기
타
주
요
자
료

다
문
화
가
정
2
0
2
0
년
도
대
상
국
가
와
의
교
육
교
류
사
업
사
업
최
종
보
고
서

사례 4.

DepEd(2020.11.16) DepEd, Korea-Phil Teacher Exchange Program Alumni Association conduct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Forum

2020. 12. 9. DepEd, Korea-Phil Teacher Exchange Program Alumni Association conduct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Forum | Department of ...

DepEd, Korea-Phil Teacher Exchange Program Alumni Association conduct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Forum

YOU ARE HERE: [PRESS RELEASES](#) > DEPED, KOREA-PHL TEACHER EXC...



DepEd, Korea-Phil Teacher Exchange Program Alumni Association conduct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Forum

The Department of Education – International Cooperation Office (ICO) and the Korea-Philippines Teacher Exchange Programme (KPTEP) Alumni Association conducted the 4th Annual Forum on Teacher Exchange Toward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 on October 30, 2020, with the theme “GCED in Action: Innovation and Solidarity in Responding to Global Disruption.”

GCED is one of the strategic areas of UNESCO’s Education Sector program for the period 2014-2021. It is guided by the Education 2030 Agenda and Framework for Action, notably Target 4.7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4 on Education).

IN THE NEWS

DepED
DEPARTMENT OF EDUCATION

2020. 12. 9. DepEd, Korea-PHL Teacher Exchange Program Alumni Association conduct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Forum | Department of ...

November 16, 2020 – Committed to revitalize teacher education, the Department of Education – International Cooperation Office (ICO) and the Korea-Philippines Teacher Exchange Programme (KPTEP) Alumni Association conducted the 4th Annual Forum on Teacher Exchange Toward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 on October 30, 2020.

The event showcased the re-entry application projects of the top three best REAP Implementers chosen from the nominees of the regions who are all part of the KPTEP – Project AETA of Chandler Ibabao from Alem Elementary School in Apayao, PIGEON of Noemi Baysa from Malabon National High School in Malabon City, and Project PLAC of George Borromeo from Schools Division Office of Manila.

With the theme “GCED in Action: Innovation and Solidarity in Responding to Global Disruption,” panel discu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novation, and solidarity was also held, led by Dr. Shab haz Khan, Director of UNESCO Regional Science Bureau for Asia and the Pacific; Hon. Bernard Dy, City Mayor of Cauyan City; Dr. Bert Tuga, President of the Philippine Normal University; and Dr. Dorothy Tarol, Awardee of 2019 Metrobank Outstanding Filipino.

The online forum was attended by officials from the Department of Education, representatives from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officials from UNESCO, delegates of KPTEP from 2012-2019, relevant stakeholders, and GCED advocates.

The forum featured messages from Stefania Giannini, Assistant Director-General for Education, UNESCO; Lim Hyun Mook, Director,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PCEIU); Jesus Lorenzo Ruiz Mateo, DepEd Undersecretary for Planning, Human Resource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and Field Operations; and Margarita Consolacion Ballesteros, Director of DepEd-ICO.

Mr. Danilo Osorio, President of KPTEP Alumni Association, also presented the accomplishments of the organization which include the report on the re-entry application projects of KPTEP alumni from 2012-2019; the participation of teachers in global activities and education forum; and the KPTEP activities for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of fellow educators and outreach programs for communities.

GCED is one of the strategic areas of UNESCO’s Education Sector program for the period 2014-2021. It is guided by the Education 2030 Agenda and Framework for Action, notably Target 4.7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4 on Education), which calls on countries to “ensure that all learners are provided with the knowledge and skills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among others, through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ustainable lifestyles, human rights, gender equality, promotion of a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 global citizenship and appreciation of cultural diversity and of culture’s contribu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END

III

기
타
주
요
자
료

다
문
화
가
정
2
0
2
0
년
도
대
상
국
가
와
의
사
업
최
종
보
고
서
업

사례 5

캐나다 한국일보(2020.11.19) 다문화교육 살펴보기 - 한국 교육부 온라인 컨퍼런스

2020. 12. 9.

캐나다 한국일보 : 다문화교육 살펴보기

다문화교육 살펴보기

한국 교육부 온라인 컨퍼런스

유지수 (edit1@koreatimes.net) -- 19 Nov 2020 03:50 PM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원장 임현묵)이 주관하고 한국 교육부가 주최하는 다문화 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성과보고회 '쌤 SSAEM 컨퍼런스'가 24일(화)~26일(목) 온라인으로 열린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참가교사 30여 명의 후속활동 발표와 교육활동 중 우수사례를 모아 놓은 온라인 전시관을 만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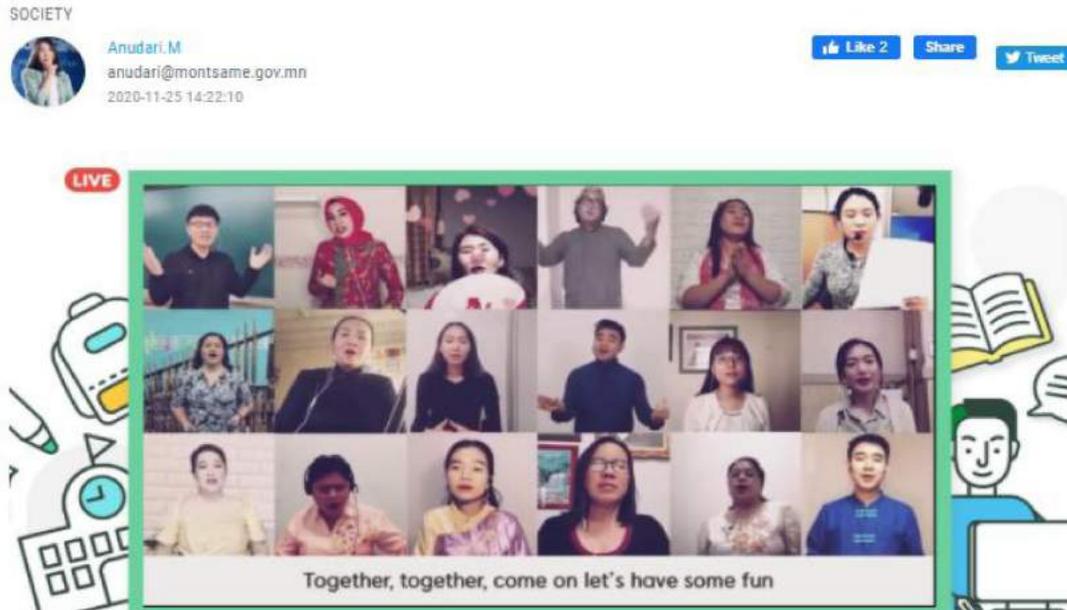
또 아태지역 학교 해외파견 활동에 관심 있는 교사를 비롯해 외국교사 초청 및 다문화 교육에 관심 있는 학교 관계자를 위한 교육교류사업 홍보관도 마련된다. 사전등록은 오는 23일(월)까지.

<http://ssaem.unescoapceiu.org/>

사례 6.

MONTSAME(2020.11.25.) Mongolian representatives participating in 'Sharing Stories of Asia-Pacific Education Movements' conference

Mongolian representatives participating in 'Sharing Stories of Asia-Pacific Education Movements' conference



Ulaanbaatar /MONTSAME/ Director of Preschool Education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J.Myagmar, specialist of the Ministry's International Cooperation Department O.Oyunbileg and specialist of the Institute of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G.Telmen are participating in the SSAEM (Sharing Stories of Asia-Pacific Education Movements) conference of the Asia-Pacific Teacher Exchange for Global Education (APTE) program being organized virtually on November 24-26.

Teachers involved in APTE between 2012 and 2019, stakeholders, and teachers of the Asia-Pacific region are taking part in the conference that allows them to present, share and expand the outcome of program.

Incidentally, music teacher of School No. 1 of Zavkhan aimag Ch.Munkhbayar together with other teachers of the program partner countries performed a song called High School Musical for the opening of the SSAEM confer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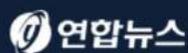
APTE is a bilateral teacher exchange program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Asia-Pacific partner countries, hos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mplemented by the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APCEIU) in collaboration with the Ministries of Education of the partner countries. Launched with two partner countries -- Mongolia and the Philippines -- in 2012, APTE has grown into a well-known regional program, now working with seven partner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 Cambodia, Indonesia, Malaysia, Mongolia, Philippines, Thailand, and Vietnam.

사례 7.

연합뉴스(2020.12.01)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2020 온라인 쌤 콘퍼런스' 성료

2020. 12. 9.

연합뉴스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2020 온라인 쌤 콘퍼런스' 성료

송고시간 | 2020-12-01 13:00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아태교육원)은 지난달 24~30일 '2020 온라인 쌤 콘퍼런스(SSAEM Conference)'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아태교육원이 주관한 콘퍼런스는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성과보고회로 진행했다.

콘퍼런스에는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인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와 한국 교사 및 교육부 관계자 400여명이 참가했다.

실시간 라이브 토크쇼에는 지난 9년간 아태지역 7개국에 파견된 한국 교사 7명이 출연해 해외 교육활동 경험을 공유했다. 또 국내외 교사 26명이 사업 참가 이후 지속한 글로벌 교육활동 사례를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온라인 방식 교육 교류 사업을 논의하기도 했다.

콘퍼런스에서 사용된 자료들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외 교사들에게 제공한다.

렌 쿤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 사무관은 "교육교류사업은 교사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는 아시아 8개국 교육생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코로나19에 대응해 인류의 기반인 교육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 12. 9.

연합뉴스

한편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은 우리나라 현직 교사를 아태지역 학교에 파견하고, 아태지역 현직 교사를 국내 학교로 초청하는 사업이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약 1천200명의 국내외 교사가 참가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2/01 13:00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

Ⅲ

기 타 주 요 자 료

다
문
화
가
정
대
상
국
가
와
의
교
육
교
류
사
업
최
종
보
고
서

사례 8.

학부모뉴스(2020.12.02) '2020 쌤 콘퍼런스', 코로나 이후 교육교류 가능성 모색



HOME > 교육

'2020 쌤 콘퍼런스', 코로나 이후 교육교류 가능성 모색

8 이종구 기자 | 2020.12.02 06:54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 렌 쿤(Kun REN) 사무관은 '2020 온라인 쌤 콘퍼런스(SSAEM Conference)'(쌤 콘퍼런스) 첫날 8개국 교육부 대표들이 참가한 패널 토론에서 교육 교류의 중요성을 "이 사업은 교사들에게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업 참가 교사들에게 교육을 받는 아시아 8개국 수만 명의 학생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인류의 기반인 교육을 무너뜨리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라고 강조하며 말했다.



'2020 온라인 쌤 콘퍼런스' 패널 토론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0 쌤 콘퍼런

스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쌤 콘퍼런스는 대한민국 교육부가 주최하고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원장 임현목)이 주관하는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이하 교육교류사업) 성과 보고회로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와 한국 교사 및 교육부 관계자 400여 명이 참가했다.

2021년 교육교류사업 10주년을 앞두고 참가국 교육부 대표들이 사업 효과를 공유한 패널 토론에서 새 참가국으로 2021년 첫 사업 참여를 앞둔 라오스 교육체육부의 교원 교육국 브영데운 오새이(Vongdeun OSAY) 부국장은 "교육교류 사업을 통한 라오스 교사의 글로벌 역량 향상은 질 높은 교육을 위해 국내외 협력을 장려하고자 하는 라오스 정부의 정책적 기조에 합치한다"고 말해 2021년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참가국 교육부 관계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막대한 교육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올해 경험을 통해 앞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교육교류사업을 지속해갈 수 있는 역량이 생겼다고 입을 모았다.

말레이시아 교육부 아하마드 라피 체 카심(Ahmad Rafee CHE KASSIM) 부국장은 "코로나는 물리적 대면 학습에서 온라인 학습으로의 교수법과 학습법의 전환을 가속했으며, 다양한 학습 접근법을 혼합하게 했고 우리는 코로나 대유행을 겪으며 IT 기술을 통해 많은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알게 됐다"며 "우리가 노력하고 협력한다면 교육교류를 통한 교원능력개발을 지속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필리핀 교육부 마가리타 콘솔라시온 발레스테로스 과장도 "글로벌 사회에서 세계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여러 문화적 맥락에 대한 지식 향상이 필요하다는 글로벌 교육의 미션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교사들의 교육 역량을 향상해 양질의 교육 달성에 이바지하고 교사, 학교 그리고 지역 사회의 글로벌 역량 및 문화 간 이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코로나가 대유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실시간으로 열린 라이브 토크쇼는 9년간 7개 국가에 파견된 한국 교사 7명이 각자 해외 교육 활동 경험에 대한 진솔한 대화가 오가면서 앞으로 해외 파견에 관심 있는 국내외 교사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경험 공유의 장이 됐다.

2019년도 몽골에 파견됐던 이준봉 청주중학교 교사는 “교육교류사업에 참가한 경험을 통해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우리나라만이 아닌 더 큰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며 넓은 시야를 가지도록 독려할 수 있는 교사로 바뀌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교사가 이런 변화와 발전의 기회를 얻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9년간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한 국내외 교사 26명이 사업 참가 이후 지속한 글로벌 교육활동 사례를 발표했다. 2015년에 한국 남원노암초등학교에 초청된 뒤 필리핀으로 돌아가 글로벌 교육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다닐로 오소리오(Danilo Osorio) 교사는 “평범한 교사를 훌륭한 교사로 만드는 것은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이라며 “한국 파견 기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생각, 가치관, 사고방식 등의 다양성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콘퍼런스 자료들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교류에 관심 있는 국내외 교사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은 우리나라 현직 교사를 아태 지역 학교에 파견하고, 아태 지역 현직 교사를 국내 학교로 초청하는 상호 교류 사업이다. 2012년 시작돼 국내외 약 1200명의 교사가 교육 활동을 수행했다.

올해까지 총 563명의 한국 교사가 아태 지역에 파견됐으며, 아태 지역에서 국내로 초청된 교사들은 총 672명이다.



이종구 기자 ljg1126@daum.net

저작권자 © 학부모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2020년도 사업 최종보고서

기타 교사 활동 보고

제2부

I. 후속활동 우수사례 발표 모음

II. 초청교사 온라인 교수자료 제작

III. 2020 온라인 SSAEM 컨퍼런스
영상·사진 공모전 우수작품 모음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2020년도 사업 최종보고서
제2부 기타 교사 활동 보고



후속활동 우수사례 발표 모음



후속활동 우수자료 발표 모음

1. 파견교사

(1) 손소담(부산부민초등학교)

문화가 녹아 있는 수업으로 전개하는 후속 활동, 교육 현장을 서서히 변화시키다.

Selamat Pagi,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부민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손소담입니다. 앞서 인사말에서 보셨듯, 저는 2018년도에 말레이시아로 교육교류사업에 다녀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파견 활동 후 실시한 후속활동 경험 및 파견국과 우리나라 학교 현장의 변화를 여러분께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사실 후속 활동은 학교 문화, 관리자 및 동료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구성원의 협조, 교육청 방침, 학교에 배정된 예산 유무 등 여러 부분에서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여러 교육활동으로 늘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후속 활동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대외적인 사업을 추진해보고도 싶었지만, 여러 한계가 있어 저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결과, 교사로서 가장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수업을 중심으로 후속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업은 학생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후속 활동으로 전개한 수업입니다. 둘째, 상호 교류 활동입니다. 마지막으로 후속 활동 후에 우리나라 및 파견국의 학생과 교사, 저의 변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가 녹아 있는 수업을 구현하기 위해서 파견국에서 가져온 학습 자료를 수업에 활용하였습니다.

첫째, 교과서입니다. 나라별로 초등학교 때 배워야 할 내용은 비슷합니다. 파견 때 수업 준비를 하면서 가장 먼저 교과서를 접했는데, 삼화나 대상에서 문화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고 신기했습니다. 학습 내용을 구현하는 방식에서도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고, 연구자료로도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귀국 때 말레이계, 중국계 학교의 영어 교과서와 과학, 수학 교과서를 따로 구입하여 가져왔고, 한국 학교로 복귀한 다음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레이시아 교과서 훑어보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신기해하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냈고, 저와 묻고 답하기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은 다른 문화 요소를 인식하고 우리나라 밖에서 공부하는 세계의 친구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로 했던 말레이시아 전설 및 이야기들을 국어 시간에 사용하기도 하였고,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 같은 경우에는 사회 시간에 사용했습니다. 주위 선생님들께서도 다른 나라의 교육과정이나 교육방식에 많은 관심을 보이셨고, 교과서를 살펴본 다음에 새롭게 알게 된 과학 실험 등을 수업에 적용해보셨습니다.

다음으로 현지 학생들의 산출물입니다. 현지 학생들과 '말레이시아를 소개하는 블로그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하였는데, 교사가 준비한 시청각 자료보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자료를 통해서 제시를 하니 실제감과 흥미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갤러리 활동으로 읽어 보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고,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점과 궁금한 점을 발표해보기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친구들이 블로그를 만드는 과정, 수업 장면도 제가 제시하니 "아, 이 부분은 저 친구가 만들었구나!", "저 친구의 이름은 뭐예요?" 질문하는 등 학생들 간의 래포 형성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같은 주제로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블로그를 만들어 말레이시아 현지 학생들에게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간 공동 프로젝트 학습을 하였습니다. 당시 재직하던 학교에서 영국문화원과 연계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수업교류(Connecting Classrooms)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환경 보호(Save the Earth)'라는 공동 주제로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여 각 나라의 환경 문제 및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과자나 라면의 재료로 사용되는 말레이시아 팜유가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으며 서로의 시각차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제가 평상시에 하는 행동이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몰랐어요. 연결되어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를 생각하면서 지내야겠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펜팔 활동 및 현지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에게 쓴 엽서, 영상 편지를 읽어보고 답장을 써보는 펜팔 프로젝트도 진행하였습니다. 제2언어로 영어를 사용하는 말레이시아 학생들에 비해서 한국 학생들은 실제적인 쓰기 활동 기회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실생활에 써보는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면, 학생들이 친구들에게 보낼 편지를 고민하면서 쓰는 진지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 교류 활동입니다. 교류 활동은 '문화 박스 교류' 및 화상 수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문화 박스 교류는 편지와 사진, 학생들이 직접 만든 한국 전통 미술 작품, 문화 아이টে임을 선정하여 파견 학교에 발송하는 것입니다. 발송 후에 파견국의 선생님과 학생들이 이메일이나 SNS 등으로 소식을 전해와서 따뜻한 정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더 지나, 말레이시아 파견국의 멘토 교사가 저와 학교를 옮기고 나서도 교류는 진행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HIP(High Immersive Programm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화상 교류를 진행하거나, 파견 학교에서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들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우리나라를 직접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습니다.

위와 같이 후속 활동을 진행하면서, 우리 학생들과 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이 향상되었습니다. 교과서나 수업 자료에서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상호 연관성을 이해하고 가치를 존중하며 스스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교사의 파견 경험이 확장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계시민교육을 대하는 학교 구성원들의 시각도 변화하였습니다. 수업에서 하는 작은 후속 활동에 주변 선생님들과 관리자, 학부모도 관심을 가지고 점차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의 파견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학교와 지역 사회의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자 학교 정책에도 반영해야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지 파견 학교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국 교사들이 활동한 기간은 3개월 남짓이었는데, 본 사업 참여로 학교 간, 교사 간, 학생 간 인적 인프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국제교류 추진의 대상으로 삼을 나라나 학교를 선정하는 데 시간이나 노력이 적게 소요되어서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파견 활동 동안 현지 학교 교사, 학생들과 래포(rapport)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SNS나 이메일을 이용해서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견 활동 이후에 닥친 코로나19라는 상황, 그에 따른 학교의 대처나 교육적 의미, 비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에도 의견을 나누고 교육현장을 서로 살펴보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견교사인 저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파견기간 동안 다른 문화권에서의 삶을 경험한 것은 여행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학생들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는지 몸소 느끼면서 세계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무겁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타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노력하니 개인이 세계 속에서 작지만 큰 자아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에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나라 교육부와 말레이시아 교육부, 파견 학교 관계자, 그리고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 곳까지 날아가는 민들레 흩날처럼, 각 파견 교사들은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서 힘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트리마 까시(Terima Kasih)!



(2) 장병철(선린인터넷고등학교)**다시 가슴이 뻐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016년 몽골로 파견을 다녀온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장병철입니다. 파견 당시에는 서울로봇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근무했던 학교를 잠깐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53번 학교는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이 모두 다 다니고 있구요.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셈이고, 약 3,000명의 학생들과 100여 명의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큰 학교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요, 9월 달 입학식을 시작할 때, 12학년, 즉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1학년 학생들을 같이 손을 잡고 들어오는 모습이 가장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 지금도 그 때만 생각하면 참, 가슴이 뻐뻐해지는 그런 장면이었구요. 제가 모든 선생님들을 다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100일 간의 활동 중 약 20분의 선생님들과 함께 재미있는 활동을 하였는데요. 모두 다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경험을 하고, 즐거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줄까를 고민하고 계신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몽골에서 제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견될 무렵에는요, 한국 문화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이미 꼭짓점을 넘어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은 한국 문화도 알고 있었구요, 또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몽골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우리가 이제 교육교류사업의 발전단계에 들어서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류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교사의 각자의 전공, 그리고 각자의 교수방법을 서로 소개하고 그리고 교류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전공으로 가져왔던 로봇 수업을 같이 한 번 하면서 로봇이라는 것을 이렇게 교류하고 학생들이 즐기고, 그 배움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규교과 시간에 제가 가져간 드론과 바퀴로봇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즐겁게 활동을 할 수 있는시간을 가져보려고 애를 썼구요. 다행히도 제가 근무했던 53번 학교에서는 제가 로봇 수업을 하는 것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건, 거기에 몽골도 저처럼, 우리나라처럼 로봇 동아리와 로봇 대회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했을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로봇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런 대회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동아리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지나고 생각한건데, 제가 그때에 몽골에 근무했던 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동료 선생님, 그리고 특히 교감 선생님께 굉장히 많은 도움과 어떻게 보면 축복을 받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스크린이 로봇 동아리를 만들고, 동아리 활동을 같이 했던 학생들입니다. 이 때 이 학생들과 12월 무렵에, 즉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대회를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4개 바퀴, 즉 바퀴가 달린 로봇으로 미로를 주행하는 그런 경기 대회였는데요. 몽골 국영 방송국에서도 아주 관심을 가지고 저희 한국인 교사가 지도한 팀이라고 소개를 했던 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 남은 기억에 제가 이 친구들과 함께 했지만, 아마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더 도움을 주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쩌면 몽골에 계신 특히 아까 나왔던 도르지 선생님이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이렇게 동아리가 여기서 끝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이 친구들과 계속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정규 수업 시간,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수업을 했던 드론 수업이었습니다. 화면에 드론이 잘 안 보이는데요. 작게 종이 비행기처럼 떠 있는 게 드론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큰 드론을 가져갈 수 없어서요, 작게 만들어진 드론을 사용하였습니다. 혹시, 학생의 표정 보이시나요? 이 날 굉장히 추운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드론을 날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때, 몽골 53번 교장 선생님이 제 수업하는걸 보셨구요. 이 수업의 학생들의 얼굴을, 또 학생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마 저에게 많은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실제 수업시간에 바퀴달린 로봇을 사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조종을 해보고 자율자동차에 준하는 자율기능을 그렇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진 경험이었구요. 이게 지금 대회를 나가서 학생들이 자기만의 프로그램을 짜서 대회에 도전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혹시 잘 안보이시지만, 저기에 계신 한 분의 선생님이 저와 지금도 교류하고 계시는 도르지 선생님입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크게 2가지 활동을 하였는데요. 첫째는 몽골에 있는 학교들을 제가 근무하는 학교들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주기적으로 교류하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학교는 몽골의 신이름 학교(New Era School)인데요. 이 학교 학생들은 1년에 한 번 서울로봇고와 주기적으로 서로 교류하는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웹 미팅을 많이 썼는데요. 웹 미팅 이용시스템, 즉 줌(Zoom) 같은 것을 이용해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로봇을 같이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까 도르지 선생님과 저,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 모였는데요. 다행히도 제가 몽골어를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도르지 선생님이 영어를 꽤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설명 드리면, 도르지 선생님이 학생들과 몽골어로 지식을 나눠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과정이었는데요. 몽골에서 계속 제가 만들고 함께 활동한 그 로봇 동아리가 지금도 이어져 오는 가장 중요한 기틀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제 앞으로 활동을 잠깐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어쩌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원격 수업 플랫폼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게,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저와 도르지 선생님은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주로 많이 만났는데요. 이제 도르지 선생님도 줌(Zoom)이라는 기술을 알게 되었고, 몽골에 있는 학생들도 줌(Zoom)을 사용하기에 굉장히 적당한 기술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활동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몽골에 있는 교사, 우리나라에 있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인공지능 교사 동호회를 만들어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학생들과 함께 재미있게 수업을 할런지를 나누는, 즉 교수방법에 대한 그런 동호회를 웨비나 형식으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아직도 통역이 있어야 되겠지만, 통역도 저희가 한국에서 섭외를 하구요. 그리고 다양한 지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스크린에 보시는 인텔에서 청소년 인공지능에 대해서 교육과정을 꾸미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텔의 지원을 받아서요, 저희 동아리에 인텔 청소년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함께 공부하는 과정을 설치할 하고, 그리고 원격 지원 시스템을 인텔에 지원을 좀 받아서, 저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공부하는, 또 바로 옆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온라인에서 몽골 선생님들과 함께 만나서 교사 동아리를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몽골에 가서 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같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온라인에 계속 모여서 이 교육교류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교사 동호회도 이용하고, 그리고 온라인에서 만나는 활동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몽골, 또 여러 개의 (국가에) 계신 다른 선생님들은 다른 국가들이겠지만, 제가 경험했던 그들 국가, 즉 몽골이나 다른 국가들과 함께 계속 교류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발표를 마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2. 초청교사

(1) Danilo G. Osorio(Kasarinlan Elementary School, 2017 필리핀 초청교사)

한국-필리핀 교육교류사업을 행동으로 옮기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필리핀 교육교류사업 기참가교사회(KPTEPAA)의 회장을 맡고 있는 교사 Danilo Osorio입니다. 오늘 저는 교육교류사업 참여 경험 이후 어떠한 후속 활동을 실천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평범한 교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립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지 15년, 저는 아직까지도 이 질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평범한 교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몇 년 전 제가 가르쳤던, 지금은 교사가 된 학생이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위대한 선생님은 한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한 아이의 사고를 열어주고, 한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Danilo 선생님, 제 삶을 어루만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선생님에게 받은 사랑을 제 학생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저와 같은 평범한 교사에게 해 주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선, 저는 위대한 교사는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15년, 저는 이 교육교류사업을 통해 한국에 파견될 행운을 얻은 스무 명의 교사 중 한 사람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교육자로서 새로 얻게 될 기회와 곧 있을 멋진 만남들에 대한 기대로 벅차 올랐습니다.

우리는 현재 다문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개인적으로 저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한국과 필리핀의 학생들 모두 언어뿐만 아니라 생각, 가치, 사고방식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학생들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이것이 그들의 학습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사려 깊게 배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의 중심부 칼로오칸(Calocan City) 시에 위치한 저희 학교의 45-50명 남짓한 학생들은 대부분 소외된 지역의 학생들입니다. 이들의 굶주림이나 빈곤을 이해하는 데는 깊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두 나라 학생들의 상반되는 상황에 대해 알게 된 저는 먼저 학생들을 대하고 가르치는 데 더 많은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지적인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공감이나 존중과 같은 태도를 가르치는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학생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위대한 교사는 지속가능성을 가르칩니다. 자원은 한정되었지만 창의력에는 한계가 없는 글로벌 세상에서 교사는 학생들과 지역사회를 향해 지속가능성의 도전에 대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속시키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글로벌 교육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필리핀 교육부의 활동목표와 궤를 같이 하여, 제가 관리하는 KPTEPAA의 170여명의 선생님들은 세계시민교육과 SDG를 중시하는 우리의 생각 및 우리가 배운 점과 신념을 되새기며 여러 후속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선생님들은 학교와 그들이 속한 지역 사회에서 무려 103 건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완수된 후속 프로젝트들이 빈곤, 기후 변화, 양질의 교육, 문화적 차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인식과 비판적 사고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한국-필리핀 교육교류사업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세계시민을 키워내고, 우리의 지역 사회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교사들의 후속 활동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글로벌 역량이나 세계시민의식, 다문화 학습과 교육의 측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자원 봉사도 포함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과 자원 봉사자들, 그리고 더 많은 사회에 영향을 끼쳐 여러 사람들이 지역 사회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통해 움직이고 사랑을 나눠주도록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교사는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교육 분야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KPTEPAA는

필리핀 교육부등 다양한 조직들과 함께 배움과 개발,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의 정신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사들이 팬데믹 기간 중 교육의 여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웨비나 학습 시리즈를 구상했습니다.

2020년 5월, 6가지 분야로 구성된 한국-필리핀 교육교류사업 학습 시리즈 제1차가 완성되었습니다. 제목은 <Update, Upskill, Upgrade: Gearing Up for the new landscape of Education>입니다.

최근에 나온 학습 시리즈 제2차의 제목은 <GroundEd: Learning to Know, to be, to do and learning to Live together>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행동을 촉구하는 데 필요한 플랫폼을 교육자들에게 제공합니다. 지금의 격차와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의 네 가지 구성요소의 잠재력을 온전히 활용하는 혁신적이고 희망적인 접근방법에 대한 교류의 플랫폼이기도 하며, 이를 통해 SDG의 달성과 세계시민의식의 향상을 지지합니다.

이 학습 시리즈에 필리핀 전역과 해외에 있는 수십 만명의 선생님들이 참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친절한 행동을 통해 타인에게 영감과 힘을 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KPTiran Laban sa Covid-19(코로나19에 대항하는 한국-필리핀 교육교류 참가교사들)”은 코로나 초기 고군분투의 과정에서 의료장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공공 의료기관의 의료진들을 돕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신 모든 기부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프로젝트인 “iKonek: masks for-a-cause”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태블릿 기반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것은 세계시민교육과도 일맥상통하는 필리핀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훌륭한 가치, 바로 바야니한 (BAYANIHAN)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질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평범한 교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교실로 돌아갑시다. 영향을 끼치고, 지속가능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을 바라봅시다. 그들의 마음을 느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읍시다. 이들은 미래의 마더 테레사, 미래의 아인슈타인, 미래의 교통경찰, 미래의 선생님, 미래의 의료진, 혹은 언젠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교사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 Kamorat Chimphali(Thanonhakkpittayakom School, 2019 태국 초청교사)

나로부터 비롯되는 변화
선생님; 학생; 학교; 사회

안녕하세요, 제 후속 활동에 대해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2019년 교육교류사업을 통해 용인강남학교에 파견되었던 Kamonrat Chimphali입니다. 저는 태국 교사이며, 제가 자란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 10년째 과학과 생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 발표의 제목은 “Start from you, connect to others”입니다. 교육교류사업은 모든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더 나은 교수법을 찾기 위한 교사들의 여정에 새로운 장을 열어 줍니다. 사업에 참여한 이후, 이제 저는 다른 나라 선생님들과의 협업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 변화를 일으키고 SDG(지속가능개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교육자들이 학생들의 공감능력, 상호 연결된 느낌, 전세계적 도전 과제에 대한 공동의 책임감을 키워주기 위한 강력한 교육의 도구로 SDG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국으로 돌아온 후, 저의 경험을 다른 선생님들과 공유함에 있어 말에서 행동으로, 한 사람 중심에서 팀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SDG에 대해 알리기 위해 제 교실을 소셜미디어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실을 SDG 관련 문구로 장식하여, SDG와 관련된 활동을 알리고 다른 선생님들이 제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했습니다.

이 활동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저에게 여러 질문을 하셨습니다. “학생들이 세계시민이 되도록 교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선생님들을 모아 팀을 꾸렸습니다.

제 활동에 관심을 보인 선생님들과 “교사학습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SDG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SDG 관련 활동을 기획해 나갔습니다.

우리는 SDG에 관한 수업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소화기관에 대해 배울 때, 이 수업 내용을 SDG 중 “기아 퇴치” 목표와 자연스럽게 연결했습니다. 이로써 음식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뿐만 아니라, 학교, 마을, 우리 나라, 그리고 세계의 식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학생들은 학교 식당, 집, 일상 생활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보며 데이터를 모읍니다. 이 데이터를 조사한 학생들은 음식은 소화와 관한 것 이상이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저희 팀은 교실을 월드 카페로 만들어 여러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월드 카페에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초대해 활동을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이 활동의 주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 “굶주린 이들은 법을 잊게 마련이다”
- “물이 오염되면 밥이 독이 된다”
- “밥을 약처럼 먹지 않으면 약을 밥처럼 먹게 될 것이다”
- “먹을 만큼만 가져와서 지구를 지키자”
- “음식쓰레기를 줄여 기후를 보호하자”

학생들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토론의 결론을 포스터로 제작하여 학교 식당에 걸었습니다.

학생들은 활동을 통해 배운 것들을 건강하게 먹기,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기 등에 적용하여 더 어린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건강한 간식과 허브 주스 만들기,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음식 용기 만들기 등을 실천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먼저이며, 그러면 세상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깨닫길 바랐습니다.

또한, 학교의 구성원들이 학교 행사 때마다 SDG에 대해 배우고, 사진을 찍도록 장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SDG 관련 활동을 제 소셜미디어에 올려 태국의 교사들이 SDG에 대해 배우고 또 가르치도록 홍보했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SDG에 대해 교육하고, SDG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 공개 수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SDG를 학교에서, 교실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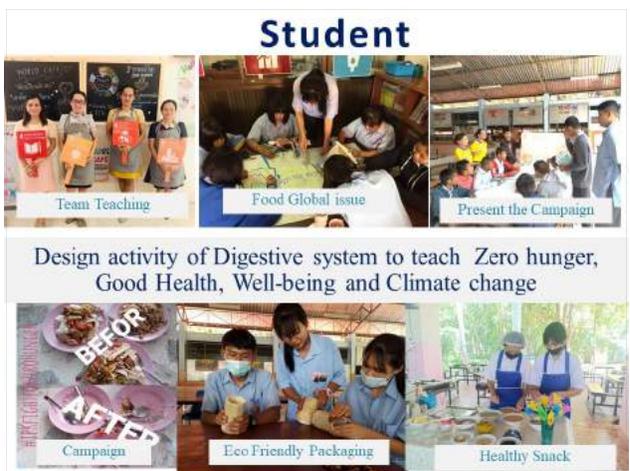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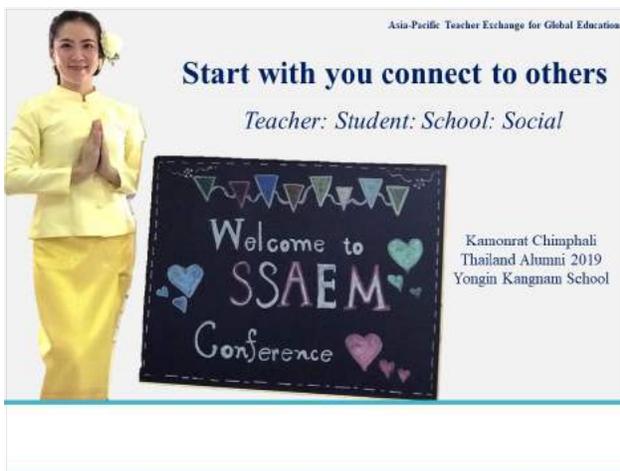
그 책은 다음의 일곱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SDG의 중요성
2. SDG란 무엇인가?
3. 교사가 SDG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4. 인식의 힘
5. 과학 과목에서 SDG를 교육하는 방법
6. 배우고 행동하기
7. 태국의 교실에서 어떻게 SDG 목표를 세울 것인가?

또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Based Learning, PBL)과 서비스 학습(SBL)을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 전국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태국 미디어펀드(Thailand Media Fund)가 저희를 모든 태국 교사들에게 SDG 활동 및 SDG 수업계획을 공유하는 유용한 교실로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세계시민의식은 우리 모두를 이어주고 더 나은 세상,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말과 행동, 실천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자신의 능력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저희 학생들에게 더 나은 선생님이 되고, 이 세상을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해 준 이 교육교류사업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저로부터 시작하여 모두에게 연결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3. 초청 배치학교

(1) 임현빈(서울공업고등학교, 2016-2019 초청교사 배치학교 협력교사)

교육교류사업 후속활동 소개 - 학생 교류 프로그램 -

안녕하십니까? 서울공업고등학교 교사 임현빈입니다.

저는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의 후속활동으로 우리학교와 초청교사 소속 학교와의 학생교류활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공고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서울공고는 1899년도에 설립되어 121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최초의 중등직업교육기관입니다. 현재까지 약 6만 여명의 졸업생이 우리나라 산업의 곳곳에 배출되어 명실공히 한국 직업교육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 수는 약 1,500명 정도이고, 교직원 약 200명 정도 됩니다.

교육교류프로그램에는 2016년부터 매년 참가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 진행한 교사교류사업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2016년에는 태국 선생님 두 분이 우리학교에 배치되었고, 2017년과 2018년에는 말레이시아 선생님 두 분이 각각 저희 학교에 배치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인도네시아 선생님 세 분이 우리 학교에 배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청색으로 표시한 학교와는 교사교류사업 종료 후에 학생 교류활동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저희 학교에서 활동하신 선생님들의 사진입니다.

우측 상단부터 2019년 초청교사인 인도네시아의 Ms. Fitra, Ms. Sry, Ms. Hesty 이렇게 세 분의 선생님이고, 그 옆에는 2018년 말레이시아 초청교사인 Mr. Farid와 Mr. Ibrahim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들께서 저희 학교에 다녀가신 후에 서울공고와 진행한 후속활동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 여름에는 2017년 초청교사인 말레이시아 칼리파 선생님의 학교에 저희 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방문하여 한국음식과 드론을 주제로 한 학생교류활동을 하였습니다.

2019년 1월에는 2016년 초청교사인 태국 위왓 선생님 학교와, 2019년 7월에는 2018년 초청교사인 말레이시아 파리드 선생님 학교와, 그리고 2020년 1월에는 태국 위왓 선생님 학교에 다시 한 번, 서울공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방문하여 학생교류활동을 운영하였습니다. 특별히, 2019년 12월에는 말레이시아 파리드 선생님 학교의 학생과 선생님이 우리 학교를 방문하여 교류활동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진 학생 교류 활동이 우리 학교 학생들과 방문 학교 학생들에게 다른 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인성적인 경험으로 남는 것을 지켜보면서, 올해도 후속사업 활동을 지속하고자 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온라인 컨퍼런스 활동으로 교류를 이어나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2019년 12월에 말레이시아 파리드 선생님의 학교의 학생과 선생님 26분이 우리 학교를 1주일간 방문하여, 상호문화교류, ICT 교육, 한국문화 소개 등의 연수 활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서울공고에서 3개월 간 함께 수업 하셨던 말레이시아 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우리 학교로 돌아오셔서 학생 공동 연수를 진행한 경험은,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를 더욱 가까운 나라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학생들에게도 한국의 직업학교를 견학하고, ICT 연수를 받는 경험은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가장 인상 깊은 활동은 'homestay'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현지 학생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함께 잠을 자면서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우정을 쌓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왼쪽 상단의 사진이 한국 학생이 말레이시아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할 때,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이 그 가정을 방문한 모습입니다.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해외방문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로 학생 교류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온라인 컨퍼런스에는 말레이시아 Farid 선생님의 학교와 인도네시아 Fitra 선생님의 학교가 참여하는 다자간 국제 컨퍼런스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7일에 첫 번째 온라인 다자간 컨퍼런스를 서울공고와 말레이시아의 SMK Sungai Kertas (Mr. Farid, 2018 Exchange Teacher)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SMAN 3 Padang Panjang (2019 Exchange Teacher) 이 3곳의 학교를 연결하여 'Educational Responses against

COVID-19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학교 교육) 이라는 주제로 웹이나 방식으로 컨퍼런스를 운영하였고, 이것을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하였습니다.

각국의 학생 2명이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처음 시도하는 다자간 온라인 컨퍼런스라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국내외 해외의 여러 신문에도 보도되는 등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두 '교육교류사업'으로 참여하셨던 Ms. Fitra 선생님과 Mr. Farid 선생님의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 덕분입니다.

제시된 사진은 1번부터 시계 방향으로, 본인과 인도네시아 Ms. Fitra 선생님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Mr. Farid 선생님이 화상회의를 통해 사전협의를 하는 모습이고, 오른쪽으로 본 행사인 10월 7일 온라인 다자간 컨퍼런스의 유튜브 실시간 중계하는 모습입니다. 그 아래로는 우리 학교 학생들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학생들이 각각 온라인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열린 10월 7일 다자간 온라인 컨퍼런스와 관련하여 국내외의 여러 언론에서도 뉴스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왼쪽 사진은 인도네시아 언론에 보도된 모습이고, 오른쪽 사진은 한국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학생 교류활동을 운영하는 이유는, 이런 활동이 우리 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교류활동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또한 한국의 발전된 ICT와 첨단기술을 해외에 알리는 좋은 기회이며, 우리 학생들의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교류사업 참가자로 한국에 오시는 초청 교사 분들은 모두 활발한 국제 교류활동에 대한 의지와 역량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3개월간 동고동락하며 함께 수업도 준비하고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신뢰와 호감이 쌓였습니다. 양국의 학생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함께 기획하게 된 것도 이러한 후속활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육교류사업에 협력교사로 참여하며 가장 크게 배우고 느낀 것은 다른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초청교사들의 열정이었습니다. 낯선 한국의 교육 환경에서 만나는 동료교사들과 학생들을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열정적으로 수업하는 초청교사들을 보며, 저도 글로벌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세계시민의식을 심어주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학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초청했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선생님들 이외에도 다른 교류국가 선생님들도 초청해서 서로의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업 종료 후의 후속활동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서 우리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작은 도움이나마 줄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교류사업에 참가하는 소중한 기회를 통해 초청국가와의 교육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한국 학교가 더 많아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서정래(인천도화초등학교, 2016~2019 초청교사 배치학교 협력교사)**낮선 것을 친근하게 만들어간 나의 교육교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도화초등학교 교사 서정래입니다. 저는 본 교육교류사업으로 2015년 베트남에 파견된 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선생님들을 매년 저희 학교에 초청하여 제가 멘토교사로서 이 사업을 담당했었는데요. 저희 파견 활동과 파견 사업 참가 이후의 후속활동으로서 제가 초청사업을 어떻게 진행했었는지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베트남 하노이 김동초등학교에 파견되었는데, 처음에는 학교의 이모저모를 살피며 적응하는 데 힘썼습니다. 아무래도 파견 교사로서 단기간 현지에 파견된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참관수업 기간 동안 학교가 공개수업 일정을 잡아주어 다양한 수업을 참관할 수 있었고, 학생들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반갑게 맞이해주었습니다.

수업시수와 내용을 조율하는 데 학교와 많은 의논이 필요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일방적으로 알리기보다는, 한국 문화와 베트남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한 문화다양성 교육으로 수업 내용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주제를 한국과 베트남의 의식주, 놀이, 자연 등의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하나씩 준비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한복과 아오자이를 비교하는 수업이었는데, 이 수업은 나중에 한국 학생들과 화상 교류 수업으로도 진행했습니다. 전통의상에 대해 서로 비교한 후, 한국 학생은 아오자이를 디자인하고, 베트남 학생은 한복을 디자인하여 서로 작품을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도 베트남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을 구상하고 역할을 배분하여 함께 수업에 대해 고민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베트남 선생님들과 함께 공동 수업안을 개발하여 수업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와 함께 수업을 준비했던 베트남 선생님들은 우리와 소통하며 수업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탐구하게 되었고, 우리도 그 과정에서 열정적인 현지 선생님들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다음 해인 2016년에 저희 학교에 베트남 선생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 중 한분은 제가 파견되었던 김동초등학교에서 오셨는데, 당시에는 짧게 이야기를 나눠 얼굴만 아는 선생님이었지만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 선생님에게 제가 베트남에서 받은 환대를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베트남 학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에서 수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도 나름대로 순조롭게 도와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지 사람들과 학교에서 받았던 좋은 인상 덕분에 저도 베트남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집에 초대해서 가족들과 인사하고 식사하며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다른 학교로 옮긴 후에도,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며 초청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근무하게 된 학교는 저 스스로도 낮선 곳이었고, 동료 선생님들에게 초청 사업 또한 긍정적인 인식이 생기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국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셔서 함께 수업을 진행할 경우 언어의 장벽 뿐 아니라 극복해야 할 여러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사업의 취지도 설명하고 각 선생님들께서 어떤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지 안내도 해드렸습니다. 꼭 먼저 말 걸지 않아도 마주치면 웃음으로 선생님들을 마주하기, 외국에서 오신 초청교사가 수업을 진행할 때 조력자로서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기, 일단 이 두 가지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도 사업의 취지가 잘 받아들여지도록 각 가정에서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가정통신문도 발송하였습니다.

드디어, 태국 선생님이 학교에 오신 첫 날, 학생들을 방송 조화로 만나는 자리에서 태국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친해지기 위해 직접 노래하며 전통춤을 보여주셨습니다. 반응이 정말 좋았고, 아이들은 태국 선생님을 복도나 교실에서 만나면 먼저 다가와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참여 전 막막해 하시던 선생님들도, 막상 태국 선생님들을 위한 참관수업이 진행되자, 열정적으로 수업을 준비하며 태국 선생님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의사소통이 완벽하게는 되지 않아도, 화식 자리에도 태국 선생님을 항상 초청하여 함께 소탈한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태국 선생님들과의 거리가 좁혀지자 한국 선생님들 중 먼저 다가가는 선생님도 생겼습니다. 여러 자리에서 편하게 대화하면서 친해진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태국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수업에 마음이 움직인 점이 컸습니다. 추석에는 명절 음식을 준비하여 태국 선생님을 초대한 학년도 있었습니다.

태국 선생님과 가까워지자 수업 준비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멘토교사로서 제가 태국선생님과 수업에 대해 협의한 후 결과를 한국 선생님들에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꾸려나갔는데, 나중에는 학년별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다 같이 수업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사업 후반부에는 한국 선생님과 태국 선생님이 프로젝트 수업을 구상하여 협력 수업을 추진하고 일부 수업을 전교사에게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함께 수업을 준비하다보니 태국 선생님들과 많이 가까워져서 나중에 우리 학교에 오셨던 태국 선생님을 만나러 태국에 직접 가는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에게 태국 동료 교사이자 친구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학생들도 모두 태국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해에는 인도네시아 선생님을, 그 다음 해에는 몽골 선생님을 초청하여 교육교류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매년 외국 선생님이 오시는 것이 학교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종종 학부모님들, 학생, 교직원 구분 없이 내년에는 어느 나라에서 선생님이 오시냐고 묻곤 합니다.

외국 선생님들이 마지막 퇴근하시는 날, 전교생이 나와 선생님들과 작별인사를 합니다. 선생님들께 받은 사랑과 그동안 쌓인 추억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힘차고 우렁찬 함성으로 인사를 하는데, 언젠가 이 선생님들을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고, 또 내년에 새롭게 만나게 될 선생님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학교에 생기게 된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 한 명의 파견 교사로부터 시작된 교류가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 모두, 그리고 아태지역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과 그분들이 계신 학교와의 교류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과 동료 선생님들께 낯설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면,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도 얼마든지 돈독한 우애를 나눌 수 있음을 알리는 교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4. 파견 배치학교

(1) Ma. Eirish Santos Zulueta

(Las Piñas National High School, 2012-2013, 2015 파견교사 배치학교 멘토교사)

영원히 빛날 우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리쉬 선생님입니다. 저는 필리핀 선생님입니다.

한국-필리핀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저는 한국 선생님들과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평화의 문화를 촉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실 파견 교사들을 만나기 전, 저희 학교의 Mrs. Eugenia V. Guerra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과 친절을 베풀면 항상 무언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로 파견 오시는 한국 선생님들께 마음을 열고, 함께 그 여정을 즐기면서 교사로서의 재능을 더욱 가꿔보세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2016년, 작은 친절들이 우정을 싹트게 했고, 이렇게 싹튼 우정으로 저희 학교와 파견 교사인 박신애 선생님의 학교 사이에 다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펜팔 프로젝트라고 불린 이 프로젝트는 평화의 문화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식, 스킬, 기질을 학생들에게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제 동료 선생님들과 저는 이 목표를 달성하면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경쟁의 부담을 줄여주고, 협업의 가치를 중시할 수 있으며, 학습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에피소드를 돌아볼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학생들이 자신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 문제를 스스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자신의 생각, 시각과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학습 과정의 에피소드를 되돌아보는 것도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배운 점을 실생활에서나 세계화 맥락에도 적용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펜팔 프로젝트 외에도, 저희 학교는 학생들이 한국어로 소통하고 다문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고안된 특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신애 선생님과 제 한국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식을 통합하는 학습 교재를 만들어 사전녹화 원격 수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9년, 저희 학교는 세계시민교육(GCED)을 반영하는 교수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학습 전 분야를 통틀어 GCED를 반영한 53가지의 검증된 교수법을 취할 수 있었고, 이것을 PAGLINANG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저희 교육 시스템이 원격 학습으로 바뀌면서 AP Hub라고 불리는 사회 과목 온라인 영상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AP Hub를 통해 학생들에게 현대시대의 도전 과제에 대해 가르치고, COVID-19 이후의 시대에 필요한 관용과 공감, 그리고 평화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교류사업과 후속 활동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A Friendship to Last(영원히 빛날 우정)'입니다.

Christine Dador (Pen Pal Project Member, 2016-2017) "2015년, 저는 한국 선생님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한 즐거운 시간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시고 저희 문화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시던 한국 선생님께 직접 배우는 것은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행운이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진심과 저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느꼈고, 그래서 선생님이 소개해주신 펜팔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Erica Mae Macabingkel (Pen Pal Project Member, 2016-2017) "2015년, 한국에서 오신 선생님과 교육교류사업을 통해 함께 한 시간은 저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 저는 외국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은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외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어 지금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이 경험이 지금의 대학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대학에서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문화 감수성이 높아졌고, 인종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음에 있어 그들을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Elisha Jabinal (Pen Pal Project Member, 2018) "이 사업을 통해 저는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제 한국 친구와 저는 전혀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문화에서 살고 있지요. 하지만 사랑, 진심, 친절과 같은 보편적인 언어를 통해 우리는 마음이 통하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Rochelle Sandigan (Pen Pal Project Member, 2018-2019) "펜팔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책임 있는 소셜 미디어 사용자가 되었습니다. 포스팅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 글을 쓸 때마다 인종 차별적이거나 남을 괴롭히는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나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때 친절하고 예의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Jason Rivero (Pen Pal Project Member, 2018-2019) "펜팔 프로젝트에서 잊을 수 없었던 활동은 '한국 문화 카라반(Korean Culture Caravan)'입니다. 주 필리핀 한국문화원을 통해서 한국과 필리핀의 오랜 친선 관계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 저는 필리핀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저희 나라가 겪고 있는 정치 및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보다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청년의 시기를 십분 활용해 앞으로 다가올 삶의 어려움에 맞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원했던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제가 꿈꿔왔던 미래, 즉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공동의 선을 향해 나아가는 미래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Ms. Pacita F. Masapol (OIC 교감, Las Piñas National High School) "Las Piñas National 고등학교는 한국-필리핀 교육교류사업에 부리를 둔 펜팔 프로젝트 등 우리학교의 여러 다문화 활동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는 파견교사였던 박신애 선생님의 도움을 계속 받아 SPFL-한국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가 더욱 넓고 깊어지고, 다양한 문화와 전통에 대한 존중을 배우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평화와 협력을 장려하는 세계시민이 되어 지금 겪고 있는 전 세계적 문제들을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계속해서 교육 과정과 학교활동에 GCED를 반영하는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Training on Enhancing the Capacity of the Teachers in Developing Teaching Guides for the Integration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cross All Learning Areas



(2) Monyneath Vann(Chea Sim Santormok High School, 멘토교사)**우리가 함께 만든 학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Monyneath Vann입니다. 저는 캄보디아 Chea Sim Santormok고등학교의 교사입니다.

우선, 2020 온라인 SSAEM 컨퍼런스에서 저희 학교의 발전상과 제 후속 활동에 대해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발표의 제목은 "Our School, We Build Up Together"입니다.

저는 2018년 한국-캄보디아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한 캄보디아 초청교사 중 한 명입니다. 저는 여수미평초등학교에 배치되었습니다.

여수미평초등학교에서 활동하며 보고 느낀 것이 참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푸른 축구장과 쓰레기가 없는 운동장, 딱 한 곳의 쓰레기 처리장 말고는 쓰레기를 찾아볼 수 없는 학교의 환경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기념식과 행사 때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의 운동장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실마다 수업과 학습을 지원해주는 정보 기술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요리 교실 등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고, 학생과 교사를 위한 위생적인 급식실도 있었습니다.

학교의 환경 외에 저는 영어 수업에도 주목했습니다. 원어민 선생님이 계시는 두 개의 영어 교실이 있었는데요. 영어 교실은 학습을 도와줄 기자재들로 잘 구성되어 있었고, 학생들은 이를 이용해 재미있게 영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학교의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저희 학교는 교육교류사업의 파견교사 배치학교로 참여했습니다.

한국 선생님 두 분이 저희 학교에 오셨는데요. 영어 과목의 임준목 선생님과 과학 과목의 김영훈 선생님입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한국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영어와 과학 과목에 관심이 많았으며, 한국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한국에서 직접 가져오신 기자재들로 저희 학교의 실험실을 확 바꿔 놓았습니다. 또한 과학 이론을 실습과 연결하여 지도해주셨습니다. 임 선생님은 영어와 한국어 둘 다 가르쳐 주셨는데요. 교실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수업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교육교류사업을 통해 한국의 학교를 경험한 저는 저희 학교를 정돈된 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하였고, 학교 내 선생님들과 학생들, 지역 사회와 함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 학교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제는 학생들이 앉아서 쉬거나 친구들과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운동장인데 아직 적절한 규격을 맞추지는 못했지만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과 선생님들을 위해 훨씬 개선 되었습니다. 함께 시작한 교내 '깨끗한 환경 만들기' 활동의 슬로건은 '내 쓰레기는 내가 치운다,' '깨끗한 우리 학교를 위해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입니다. 적절한 장소에 일반/재활용 쓰레기통을 두었습니다. 교실과 운동장 주변의 쓰레기통을 치우고, 깨끗한 환경의 중요성을 깨달은 학생들의 행동이 변화되어 교내 쓰레기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교실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영어 선생님들이 영어 교과서로만 수업을 했습니다. 수업 방식은 학생 위주보다는 교사 위주였고, 교실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수법을 바꾸어서 영상실에서 수업을 합니다. 때때로 학생들은 그룹을 지어 함께 리서치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교실 앞에서 발표를 하면서 자신감을 키우기도 합니다.

과학 교사들은 실험실에서 실험 수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실험을 통해 수력발전 장치에서 전기를 얻어내는 방법을 실습했습니다. 또한 영상실과 더불어 국제 활동실, 독서실, 실험실, 회의실, 전산실 등 다양한 활동반들이 생겨 학교의 발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에서 2023년까지 저희 학교의 발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운영회는 적절한 기준에 부합하는 농구와 배구 코트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교실 앞에 나무를 심고 정원을 가꾸어 학생들을 위해 더 푸르른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정수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 발표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I
홍익대학교
우수자료
발표모임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2020년도 사업최종보고서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2020년도 사업 최종보고서
제2부 기타 교사 활동 보고



초청교사 온라인 교수자료 제작



초청교사 온라인 교수자료 제작

1. 강의목록

| 강의 내용 | | | | | |
|---------------|-----------------------------|-----|------------------------------------|--|---|
| 국가 | 성명 | 학교급 | 수업과목 | 수업 주제 (강의명) | 수업안 내용(Lesson Plan) (차시명 포함) |
| 말레이시아 (2명) | Norhailmi Bin Abdul Mutalib | 중 | 과학 (Continuity of Life) |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생태계 및 멸종위기 동물을 통해 알아보는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 (1 차시) 말레이시아의 맹그로브 숲과 한국의 갯벌 생태계에 대해 배우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기 (2 차시)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 알아보고,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배우기 |
| | Khairunnisaa Binti Mohamad | 중 | 사회(지속가능한 세계)/ 창체(봉사, 동아리)/미술 | 바다 거북 구하기 | (1 차시) 말레이시아 바다 거북 개체수 감소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이해하기 (2 차시) 바다 거북을 구하는 방법: 함께 약속해요! (종이감기 공예) |
| 베트남 (2명) | Nguyen Thi Thanh Thao | 초 | 바생/사회 | 베트남의 도시와 시골 | (1 차시) 호치민을 통해 베트남의 도시 생활 이해하기 (2 차시) 티엔장 지역을 통해 베트남의 시골 생활 이해하기 |
| | Huynh Ngo Minh Tam | 초 | 체육 | 베트남의 전통 놀이 | (1 차시) 베트남 전통 놀이: 대나무 춤(Nhảy sạp) (2 차시) 베트남과 한국의 전통놀이 비교: 공기놀이와 투호 |
| 인도네시아 (1명) | Hadi Sukoco Sumarya | 중 | 과학(화학) | 산·염기 반응을 통한 인도네시아 바틱 염색 체험 | (1 차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전통 복장 (2 차시) 인도네시아 전통 염색 기법 '바틱' 체험: 산·염기 지시약(페놀프탈레인)의 마법! |
| 캄보디아 (2명) | Kem Malyskrang | 중 | 음악 | 캄보디아 전통 음악 체험 | (1 차시) 캄보디아의 전통 드럼에 대해 배워보자! (2 차시) 캄보디아의 전통 실로폰에 대해 배워보자! |
| | Bun Phallin | 초 | 도덕 | 교육과 인권 | (1 차시) 인권이란? (2 차시) 캄보디아의 학교 생활에 대해 알아보고, 교육권에 대해 이해하기 |
| 태국 (1명) | Nanthaporn Keawharn | 초 | 바생, 슬생, 즐생 / 사회(Sustainable World) | 레이 끄라통(Loy Krathong): 아름다운 태국 전통 축제와 환경 보호 | (1 차시) 레이 끄라통 축제에 대해 알아보자! : 종이 끄라통 만들기 (2 차시) 레이 끄라통을 통해 보는 하천 환경문제와 보호 방안 탐구 |
| 필리핀 (2명) | Julyn A. Guba | 초 | 도덕, 바생, 슬생, 즐생 / 사회 / 영어 | 안녕 민지, 꾸무스타 마리아 | (1 차시) 안녕 민지, 꾸무스타 마리아 책 내용 배우기 (2 차시) 안녕 민지, 꾸무스타 마리아 책을 통해 필리핀과 한국 비교하기 |
| | Kristine Joan D. Barredo | 초 | 도덕 | 필리핀과 한국의 쌀 문화 이해 및 음식에 대한 감사함 배우기 | (1 차시) 이야기를 통해 배우는 한국과 필리핀의 쌀 문화 (2 차시) 음식물 쓰레기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기 |

II
초청교사 온라인 교수자료 제작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2020년도 사업최종보고서

2. 강의 계획서

(1) (말레이시아) Khairunnisaa Binti Mohamad: 바다 거북 구하기

| 수업 계획서_1차시 | | |
|------------|---|-------|
| 추천 과목 | 과학 | |
| 수업 주제/제목 | 바다 거북 구하기 | |
| 학습 목표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말레이시아에서 거북이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는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2. 바다 거북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실천할 수 있다. | |
| 수업 자료 | | |
| 학습 단계 | 활동 | 자료/노트 |
| 수업 과정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사가 말레이시아 거북이 종류를 소개한다. 2. 교사가 줄어들고 있는 거북이의 개체 수에 대해 이야기한다. 3. 교사가 감소의 원인을 이야기한다. 4. 교사가 학생들이 바다 거북이를 살릴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근처 환경보호를 위해 바닷가에서 쓰레기를 줍는 영상을 보여준다. <p>교사는 학생들에게 모두가 미래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하고,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일상에서 바다거북을 구하는 방법을 실천하도록 격려한다.</p> | PPT |
| 비고 | | |

수업 계획서_2차시

| | | |
|----------|---|------------|
| 추천 과목 | 과학 | |
| 수업 주제/제목 | 바다 거북이를 구하는 방법: 함께 약속해요! | |
| 학습 목표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상생활에서도 바다 거북이를 구하기 위한 방법 실천을 약속할 수 있다. 2. 바다 거북이를 지키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 |
| 수업 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칼 • 막대기나 밀대 • 풀 • 집게 • 가위 (잡지 종이 이용 시) • 5mm 또는 0.5cm 두께의 종이 3가지 색 (또는 잡지 종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한 색 - 4개의 긴 가닥 5개의 반 가닥 (3개의 긴 가닥을 반으로 자름) 3개의 4분의 1가닥 (1개의 긴 가닥을 4등분) - 중간 색 - 4개의 반 가닥 (2개의 긴 가닥을 반으로 자름) - 연한 색 - 4개의 반 가닥 (2개의 긴 가닥을 반으로 자름) • 맹세 종이의 반침으로 두꺼운 종이 사용 • 사인펜 | |
| 학습 단계 | 활동 | 자료/노트 |
| 수업 과정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사가 플라스틱과 쓰레기가 어떻게 바다에 다다르게 되는지 이야기한다. 2. 교사는 플라스틱과 기타 쓰레기가 어떻게 바다 거북이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한다. 3. 교사는 바다 거북이의 삶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줄이는 방법을 나열한다. (예, 다회용 장바구니 사용, 일회용 물병을 사지 않고 다회용 텀블러 사용하기, 플라스틱 빨대 사용하지 않기 등) 4. 재활용에 강조를 두면서 교사는 바다 거북이를 주인공으로 해서 만들기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교사는 킨링 아트를 소개하고 오늘 거북이 킨링 아트를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 5. 교사는 필요한 재료를 나열한다. 재활용 활동이므로 학생들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을 사용해 DIY 킨링 키트를 만들거나 가게에서 파는 킨링 키트를 선택할 수도 있다. (원하는 경우) 6. 교사는 카드 제작법을 단계별로 보여준다. 7. 학생들은 카드 안쪽에 바다 거북이를 살리기 위한 약속을 적는다. <p>모든 것이 완료되면 다음의 해시태그를 달아 소셜 미디어에 작품을 포스팅할 수 있다. #koreanyouthforseaturtleconservation 및 #unescoapceiu</p> | PPT, 킨링 키트 |
| 비고 | | |

II

초등교사 온라인 콘텐츠 제작

다문화 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2020년도 사업최종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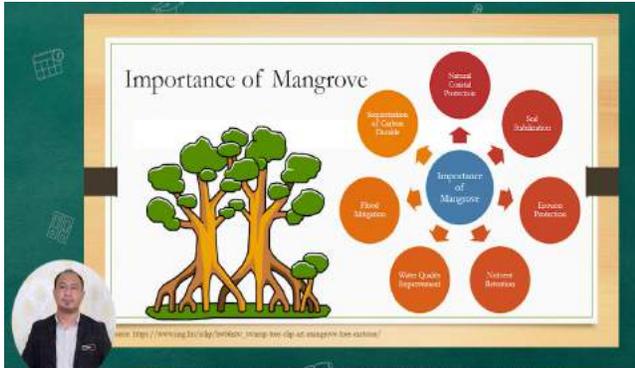
(2) (인도네시아) Hadi Sukoco Sumarya: 산·염기 반응을 통한 인도네시아 바틱 염색 체험

| 수업 계획서_1차시 | | |
|------------|---|---------|
| 추천 과목 | 과학-화학, 상호문화이해 | |
| 수업 주제/제목 | 산/염기 지시약인 페놀프탈레인 1%를 활용하여 인도네시아 전통문양(바틱) 그려보기 | |
| 학습 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의상에 대한 역사와 정보 알아보기 - 전통 의상 및 문양의 가치와 도덕적 메시지를 통해 문화 간 이해 배우기 | |
| 수업 자료 | | |
| 학습 단계 | 활동 | 자료/노트 |
| 수업 과정 | <p>주요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인도네시아 전통 의복이자 문양인 바틱에 대해서 설명한다. • 교사는 한국의 한복에 대해서 설명한다. • 교사는 인도네시아 바틱, 그 중에서도 특히 바틱 메가먼둥에 관한 비디오를 보여준다. <p>수업 후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짐으로써 학생들의 창의력을 증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시민으로서, 전통의복을 보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가? | PPT, 영상 |
| 비고 | 교사는 전통 의상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전통 패턴들이 담고 있는 다양한 의미들에 대해 상세히 소개한다. | |

| 수업 계획서_2차시 | | |
|------------|--|---------|
| 추천 과목 | 과학-화학, 상호문화이해 | |
| 수업 주제/제목 | 산/염기 지시약인 페놀프탈레인 1%를 활용하여 인도네시아 전통문양(바틱) 그려보기 | |
| 학습 목표 | - 수산화나트륨의 특성 이해하기 - 실험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바틱 문양을 만들고, 산-염기 반응 이해하기 | |
| 수업 자료 | 흰 종이, 분무기 병, 작은 붓, 수산화나트륨 (NaOH) 용액 100ml, 1% 페놀프탈레인 (PP) 100ml | |
| 학습 단계 | 활동 | 자료/노트 |
| 수업 과정 | <p>수업 전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가 실험에 쓰일 재료를 설명한다. <p>주요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는 수산화나트륨(NaOH) 및 페놀프탈레인 1% 용액의 특성을 설명한다. 교사는 수산화나트륨(NaOH) 용액과 작은 붓으로 흰 종이에 패턴을 그린다. 패턴을 그린 후 교사는 페놀프탈레인 1% (PP) 용액을 종이에 뿌린다. <p>수업 후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분사한 후, 패턴의 색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 PPT, 영상 |
| 비고 | | |

II
 초·중·고사 온라인 고품질 자료 제작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2020년도 사업최종보고서

3. 영상 사진



천연 정화조이기도 한 맹그로브 숲은 수질 개선은 물론 동식물의 멸망뿐 보존에도 이바지합니다.



이 사진은 러어 고라롱 축제 후에 드러난 환경 문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빛의 축제라고도 알려진 러어 고라롱 축제는 태국 음력 12번째 달의 보름달이 뜨는 밤에 열려요.



어떻게 하고 손을 올바르게 씻어요.



남아 있었으며, 2019년 이후로는 트렁거우에서 멸종위기종이 되기까지 지켜 왔어요.



대사관의 카드에 바다거북이 멸종위기종으로 도래하겠다는 약속을 작성해 주세요.



저희와 함께 바다거북 지킴이가 돼 주세요. 거북이를 구해요.

HUMAN RIGHTS

- The document stated the human rights is called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 (UDHR)".
- It has 30 articles/rights stated in that to promote peaceful world.
- Every government and citizen are expected to follow the standards and rules stated in UDHR.

Image from: Irish Human Rights and Equality Commission

인권을 명시하는 문서는 세계인권선언 또는 짧게 UDHR이라고 불러요.



During break time

"Du Jumping Game"

잠이 붙아요?

"한국에서는 사방치기라고 불러, 내가 가르쳐 줄게"라고 민지가 말했어요.



II
초등교사 유망인 곳 자료 제작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2020년도 사업최종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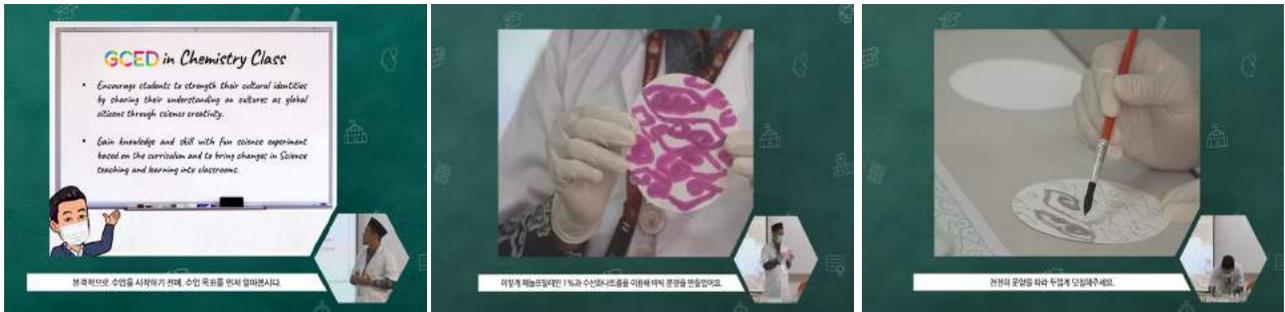


본인은 물론 여타 소외와, 농부, 다 문화가정에게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특수성은 한국과 필리핀에서 어떻게 농사가 이루어졌는지, 농민 생활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게 하도.



오늘 배워볼 놀이는 대나무 줄이예요.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업 목표를 먼저 알아버리시라.

직접적 체험으로만은 1%의 수업을 이해할 수 있을 뿐이지, 큰 영향을 만들 수 없습니다.

본인의 공부를 위한 두번째 단계를 배우세요.





4. 시범 활용 수업 보고서

(1) 박새롬 선생님(아름초등학교)

○ 활동 교수자료

| | |
|------|--------------------|
| 강의자명 | Bun Phallin (캄보디아) |
| 강의 명 | 교육과 인권 |

○ 교수자료 활용(수업) 내용

| 과목 | 도덕 | 학년/반 | 4학년 6-7반 | 수업 시간 | 2차시 |
|-------|---|--|----------|-------|---|
| 주제 | 인권이 무엇인지 알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 갖기 | | | | |
| 학습 목표 | 인권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학교 생활 모습을 비교하여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 | | | |
| 구분 | 학습과정 | 학습활동 | | | 수업자료 |
| 수업진행 |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중”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기 ○ 도덕교과서 102쪽 함께 읽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트잇 • 이젤패드 • 도덕 교과서 |
| | 전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1] 인권이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기 - 영상 함께 보기 ○ [활동 2] 캄보디아의 학교생활과 비교하여 교육권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캄보디아와 우리나라 학교 생활 비교하기 - 캄보디아와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공통점 찾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영상 • 프린트물(학습지) • 활동지 (퇴실카드) |
| | 정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기 | | | |

○ 수업 성과

- ▶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캄보디아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통해 비슷한 점(배우는 교과, 수업시간, 학교에서 하는 놀이)와 다른 점(급식, 시정시간, 학교시설) 등을 알게 됨
- ▶ 수업 후, 학생들과 통일교육을 하게 되었는데, 학생들이 세계 인권선언문을 생각하여 “그럼 북한에서는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거네요.”라고 대답했을 때, 수업에 성과가 있었음을 느낌
- ▶ 수업 중, 캄보디아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 사람 같아요.”라는 말을 한 학생들이 많았는데, 인종과 국적이 꼭 같지 않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게된 계기가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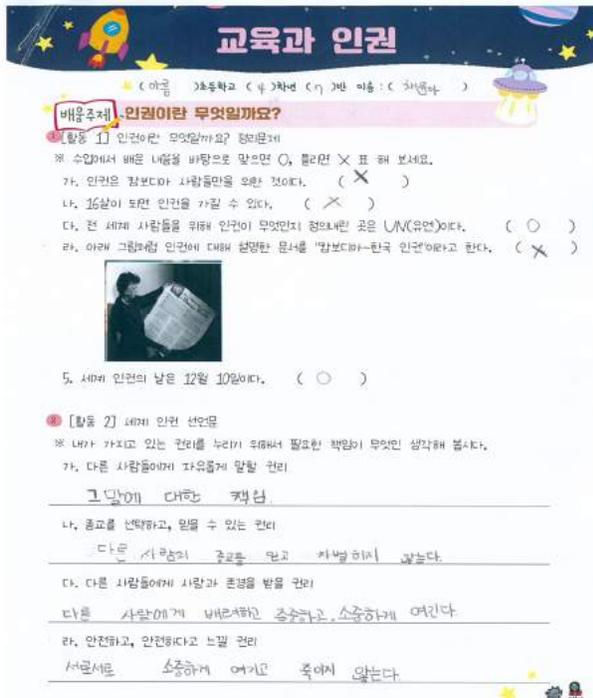
수업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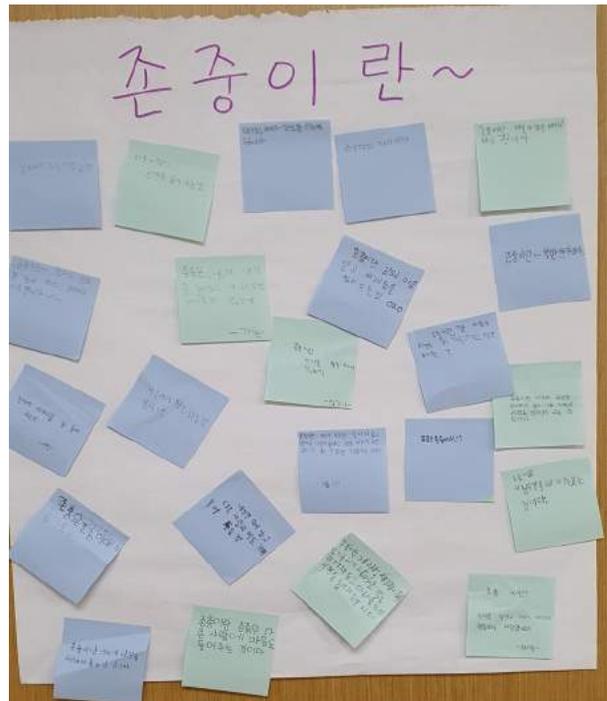
〈수업영상 보고 있는 장면〉



〈활동지를 해결하는 장면〉



〈활동지 답변〉



〈도입활동〉

마무리

| 구 분 | 내 용 |
|---------|--|
| 개별 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선생님의 수업을 신기해하면서도 집중하여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도 수업에 자료로 사용하고 싶었음 ▶ 현재 초등교육과정 상, 인권은 5-6학년군에서 다루는데, 3-4학년 군에서도 인권에 대해 쉽게 접근하여 수업이 가능함을 알게됨 |
| 건의 및 제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막이 작아 뒤에 앉은 학생들은 보기가 어려웠음 ▶ 수업 시간(30분)에 비해 수업 영상(24-25)이 길어 영상 중간에 교사가 보충 설명을 하면서 수업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으며, 초등학생들에게는 집중하기에 길이가 긴 부분이 있었음 ▶ 영상 수업내용을 조금 줄이고, 자료를 활용하여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면 좋겠음 |

II 초·중·고사양안인공및자료 제작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2020년도 사업최종보고서

활동지



() 초등학교 () 학년 () 반 이름 : ()

배움주제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1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정리 문제

※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맞으면 O, 틀리면 X 표 해 보세요.

- 가. 인권은 캄보디아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다. ()
- 나. 16살이 되면 인권을 가질 수 있다. ()
- 다.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인권이 무엇인지 정의내린 곳은 UN(유엔)이다. ()
- 라. 아래 그림처럼 인권에 대해 설명한 문서를 '캄보디아-한국 인권'이라고 한다. ()



- 5. 세계 인권의 날은 12월 10일이다. ()

2 세계 인권 선언문에 대해 알아보기

※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 가.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권리는 무엇일까요? ()



- ① 국가에 속할 권리 ② 놀 수 있는 권리
- ③ 사상이나 믿음에 대한 권리 ④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

- 나.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권리는 무엇일까요? ()



- ① 재산을 소유할 권리 ② 노예제도 및 매매금지의 권리
- ③ 일할 권리 ④ 결혼과 가족을 이룰 권리



다.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권리는 무엇일까요? ()



- ① 국가에 속할 권리 ② 놀 수 있는 권리
- ③ 사상이나 믿음에 대한 권리 ④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

※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책임이 무엇인 생각해 봅시다.
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말할 권리

나. 종교를 선택하고, 믿을 수 있는 권리

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권리

라. 안전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권리

3 캄보디아와 우리나라 학교생활

※ 캄보디아와 우리나라 학교를 비교하여 봅시다.

가. 공통점

나. 차이점

※ 우리가 학교생활을 할 때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3가지 써 보세요.

1.

2.

3.

〈세계인권선언문(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 제정)〉

- 제1조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 제2조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 제3조 :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 제4조 :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일절 금지한다.
- 제5조 :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모욕,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 제6조 :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 제7조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제8조 :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 법원에 의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 제9조 :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 제10조 :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별 받을 때,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평하고 공개적인 심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11조 :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공개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 제12조 : 개인의 프라이버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해 타인이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도 타인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
- 제13조 :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살 수 있다. 또한 그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
- 제14조 :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고 그곳에 망명할 권리가 있다.
- 제15조 : 누구나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근거 없이 국적을 빼앗기지 않으며, 자기 국적을 바꾸거나 다른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 제16조 : 성년이 된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으며,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결혼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남녀는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 제17조 :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하여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누구나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는다.
- 제18조 :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 제19조 : 모든 사람은 의사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 제20조 :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 제21조 :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의 공직을 맡을 권리가 있다.
- 제22조 :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23조 :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 상태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제24조 :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할 권리와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
- 제25조 :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 제26조 :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과 기초교육은 무상이어야 하며, 특히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 제27조 :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학문적 진보와 혜택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 제28조 :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의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체제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 제29조 :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한 인간으로서 의무를 진다.
- 제30조 :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II

(2) 문옥주 선생님(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

활용 교수자료

| | |
|------|--|
| 강의자명 | Nanthaporn Keawharn (태국) |
| 강의 명 | 레이 끄라통 (Loy Khrathong): 아름다운 태국 전통 축제와 환경 보호 |

교수자료 활용(수업) 내용

| 과목 | 과학 | 학년/반 | 5학년 1-4반 | 수업 시간 | 2시간 (80분) 블록으로 운영 |
|-------|--|--|----------|-------|--|
| 주제 | 아름다운 레이 끄라통 축제를 알아보고, 수질오염의 원인 및 해결방안 탐구하기 | | | | |
| 학습 목표 | 태국의 전통 축제인 레이 끄라통 축제에 대하여 알아보기 | | | | |
| 구분 | 학습과정 | 학습활동 | | | 수업자료 |
| 수업진행 |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선생님과 만나기 ○ 레이 끄라통 축제 분위기를 감상하고 소감나누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영상 |
| | 전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이 끄라통 축제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의미, 유래, 시기 등 ○ 레이 끄라통 축제 분위기 감상하고 소감 나누기 ○ 색종이로 끄라통 만들기 ○ 끄라통을 활용하여 민속춤 배우기 ○ 레이 끄라통 축제로 발생하는 문제점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오염의 원인: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으로 만든 축제 바구니가 하수구와 수로를 막아 수질 오염을 일으킴 ○ 하천 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구니의 소재 바꿈: 천연 및 생분해성 재료 - 재사용하기/재활용하기 - 쓰레기를 처리하는 봉사자 참여 - 캠페인 활동: 뉴스 등 - 사이트 접속으로 온라인 레이끄라통 축제 참여하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영상 • 21cm*21cm, 색종이, 끄라통, 전기촛불 • 강의영상, 배움 공책 • 모둠별 토의토론 후 강의영상 시청 • 나만의 창의적인 끄라통 재료를 생각해보기 |
| | 정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레이 끄라통 축제에 참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글 검색 활용 ○ 성찰 관점에 따라 배움 공책에 배운 내용 정리하고 자신의 생각 기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축제에 대한 나의 생각 -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점, 느낀 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기기 • 배움 공책 |

수업 성과

- ▶ 태국의 전통 축제인 레이 끄라통 축제를 통해 학생들은 태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이후 축제에 직접 참여하고 싶어함.
- ▶ 학생들이 좋아하는 활동인 종이접기로 색종이 끄라통을 만들고, 자신이 만든 끄라통을 활용하여 직접 태국 민속춤을 출 수 있어서 학생들이 매우 흥미롭게 태국 문화를 접할 수 있었음.
- ▶ 전통 축제의 의미를 계승하는 것 보다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화려한 의식 행사에 치우치다 보면 자연을 훼손(수질오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성하는 기회가 됨.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축제의 전통을 계승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모으는 유의미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가짐.

수업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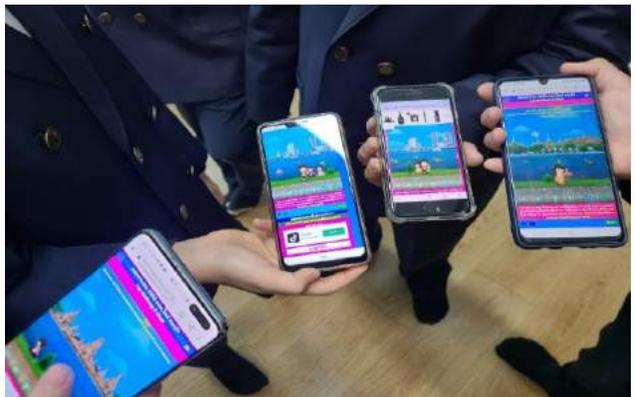
〈강의 영상 자료를 시청했어요〉



〈끄라통을 만들었어요〉



〈민속춤을 추었어요〉



〈리이 끄라통 온라인축제에 참여했어요〉

마무리

| 구 분 | 내 용 |
|----------------|---|
| <p>개별 성과</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은 다른 나라의 전통에 무척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만들기 및 체험하기 등의 활동 중심의 수업을 무척 좋아하지요. 태국의 끄라통을 색종이로 접어보고, 민속춤도 직접 배우면서 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 전통 축제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확인해보고, 인간의 행동으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안을 탐구해 봄으로써 축제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어서 변한 환경교육이 아닌 전 인류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흥미로운 환경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
| <p>건의 및 제안</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면 구성이 전체적으로 작아서 교실에서 수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화면을 가로로 꼭 차게 구성하고 자막의 크기도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별 온라인 수업용으로는 괜찮겠으나 교실에서 함께 공부하기에는 화면이 전체적으로 작았습니다. 자막의 경우, 중간중간 교사가 내용을 설명해 주거나, 학생들이 교실 앞쪽으로 나와서 시청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 5학년을 대상으로 1차시 끄라통 종이접기를 했는데 종이접기 단계가 많아 색종이가 찢어지기 쉬웠습니다. 조금 더 질긴 색종이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전통춤이 참 흥미로운데 강의 시간이 길어 수업 시간 내에 지도하는데 벅했습니다. ▶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므로 2차시에 통계자료를 너무 디테일하게 말로만 분석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간략하면서도 시각적으로 그래프를 통해 통계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함께 제시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2020년도 사업 최종보고서
제2부 기타 교사 활동 보고



III

2020 온라인 SSAEM 컨퍼런스
영상·사진 공모전 우수작품 모음



2020 온라인 SSAEM 컨퍼런스 영상·사진 공모전 우수작품 모음

1. 영상·사진 공모전 주요 결과 요약

| | | | |
|-------|------------------------------|-----|-----------|
| 접수 결과 | 총 8개국 73명(팀 포함) 참가 및 197점 제출 | | |
| 심사 절차 | 적격 심사(1차, 내부), 작품 심사(2차, 외부) | | |
| 수상 결과 | 최우수상 | 우수상 | 장려상 |
| | 8명(팀 포함) | 11명 | 30명(팀 포함) |

2. 주요 작품(영상)

※ 출품 영상의 스크립트로 대체

1. 당신에게 SSAEM 컨퍼런스란?

| 참가자 정보 | | | 출품 영상 내용 |
|--|-------|------|--|
| 홍호선 | 베트남 | 2017 | SSAEM(쌔)이란 단어는 한국에서 선생님을 부르는 귀여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SSAEM 컨퍼런스를 통해) 다양한 교사들, 즉 다양한 '쌔'들을 볼 수 있습니다. SSAEM 컨퍼런스는 교수 능력과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Michelle Lim Chia Wun | 말레이시아 | 2018 | SSAEM 컨퍼런스는 참가 교사가 글로벌 교육에 대한 경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게 SSAEM 컨퍼런스는 제가 사업 참가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나누고, 또 다른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교사들이 공유한 경험과 이야기를 통해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발판이었습니다. |
| Kem Malyskrang, Keo Seyhakmoly, Him Mana, Bun Phallin | 캄보디아 | 2019 | SSAEM 컨퍼런스는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의 교육 활동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SSAEM 컨퍼런스는 제가 다양한 환경에서 가르치고 배우면서 세계시민으로서의 미래를 공유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중 연설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
| Demberel Urantogos | 몽골 | 2019 | 이제 우리는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어떻게 세계시민으로 살아가고 교육을 받는 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0 온라인 SSAEM 컨퍼런스에서 우리의 이야기와 성과를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2020 온라인 SSAEM 컨퍼런스를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미래는 교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
| Fitra Murni Agus Ramayulis | 인도네시아 | 2019 | SSAEM 컨퍼런스는 사업 참가 학교와 교사들의 교육적인 성과에 대해 검토하고 나누기 위한 자리입니다. 저는 2019년 참가자로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사업 참가 경험을 통해 저는 지식, 통찰력, 페다고지, 그리고 문화 간 이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매우 만족합니다. 이 사업은 훌륭하고, 매력적이며, 도전적이고 유익한 사업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하십시오! |

2. 당신에게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이란?

| 참가자 정보 | | | 출품 영상 내용 |
|---------------------------|-------|------|--|
| 이지원 | 베트남 | 2015 | 현지 학교에서 한국 교육과 한국 문화를 알리고, 또한 저도 아이들의 순수함과 그 선생님들의 열정,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에 녹아들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어떻게 제가 경험하고 배운 것을 한국 교육에 적용할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
| 오광래 | 필리핀 | 2013 | 세계 교육교류사업의 의미는 그 지역 주민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서로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가르치고 배울 특별한 기회를 준 데 있습니다. 가장 유익한 점은 우리가 세계 시민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해야 하고 모두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해야 합니다. |
| Wiwat Sankham-nark | 태국 | 2016 | 교육교류사업은 동료들과 학생들, 그리고 저 자신이 글로벌 시민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관문입니다. 이 사업은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더 나은 이해와 삶, 그리고 함께하는 배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 유경수 | 필리핀 | 2015 | 교육교류사업은 세계 세계시민교육 교사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 디딤돌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지식과 감성을 조화롭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체험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나가며 그 지역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활동을 추구하였던 활동들이 지금 한국에서 학생들에게 세계시민교육을 지식만이 아니라 감성과 생생한 경험을 함께 조화시켜 교육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Syamsul Azhan Bin M Raymi | 말레이시아 | 2016 | 교육교류사업은 교수 역량뿐만 아니라 학습의 측면에서도 글로벌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 예로, (제가 참여한) Letters from Korea 책 제작 프로젝트는 외국 교사들이 한국에 있는 동안 겪은 귀중한 경험과 그들의 독특한 관찰 내용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
| Rosdiana Rawung Arnold | 인도네시아 | 2018 | 교육교류사업은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과 이해로 나누고 배우는 세계시민교육을 (알게해준) 아름다운 가을 여정이었습니다. |

III

2020년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2020년도 사업최종보고서

3. 주요 작품(사진)



Jejomar G. Villacorte (필리핀, 2019)



Kem Malyskrang, Keo Seyhakmoly, Him Mana, Bun Phallin (캄보디아, 2019)



Magdalena Batubara (인도네시아, 2014)



Alumni (말레이시아, 2019)



Demberel Urantogos (몽골, 2019)



Kamonrat Chimphali (태국, 2019)



Do Thi Ngan (베트남, 2016)



Hadi Sukoco Sumarya (인도네시아, 2018)



Michelle Lim Chia Wun (말레이시아, 2018)



Julyn A. Guba (필리핀, 2015)



Nong Thi Bich (베트남, 2019)

III

2020-2021 사회적 거리두기 시대의 교사
2020 온라인 2020년 SSAEM 교사

다문화 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 교류 사업
2020년도 사업 최종보고서

4. 주요 작품(편지)

| | | | |
|-------|-------------------|-------|-------|
| 발신 국가 | 말레이시아 | 수신 국가 | 한국 |
| 발신 교사 | Diana Alui Daniel | 수신 학교 | 대동중학교 |

To: Daedong Middle School, South Korea
From: Teacher Diana Alui Daniel, SMK Taman Perumahan Bedaun, Malaysia

Dear Principal, teachers, students and staff of Daedong Middle School,

안녕하세요. Greetings and 'apa khabar?' from Malaysia! It had been almost a year into 2020, and still the memories with everyone there remain fresh as yesterday. We will never forget this experience of teaching at your beautiful school.

How is everyone back there? I hope you're all feeling fine and in the best of health. I have missed everyone terribly, and looking back at all the pictures have brought fond memories of our short, but meaningful time in Pohang.

It was truly an honor and privilege to be one of the selected teachers for the Korea-Malaysia Teachers Exchange Program in 2019. It has always been my dream to educate students in a foreign land, and when I was selected to join this program, I was over the moon! We will always remember our daily walk uphill, surrounded by vast and magnificent pine trees was scenic as the air crisp and fresh. The pristine landscape of Daedong, dotted with masses of coniferous trees reminds me of our time walking to school every day for about 2 kilometres, enjoying the view of pine trees turning colors with the seasons; which was a blessing in disguise and good exercise!



Using Picklers App in class and we played "Knowing Malaysia Quiz"

At the beginning of this year, I have been transferred to a small school on the island of Labuan, off the northwest coast of Borneo.

Although I have started 2020 with a new set of students, the passion for disseminating knowledge and teaching language skills is the fuel that keeps me going. I have continuously shared my experience of teaching in South Korea in my lessons, telling them excerpts from memory. I have many times noticed profound interest amongst my teenaged students whenever I mentioned BTS or any of their K-pop idols in my lessons.



Lesson on Hanbok Wearing and Malaysian Traditional Costume

Here are some of the best times that Munirah and I had at Daedong Middle school.

A remarkable experience for me was during the 'Hanbok and Malaysian Traditional Costumes' class. I had the opportunity to learn about hanbok wearing and teach Korean students the Malay traditional costume and the unique Sarawakian costume. Introducing stories such as tribal tattoo art and traditional art carvings and crafts which is somewhat mundane and insignificant to me back home, had sparked interest in the students as they enquired about the history, designs about the unique and antique craft and accessories. It evoked a lot of childhood memories retelling and sharing stories of my own indigenous Sarawakian culture to the Korean boys.



Lesson on Tribal Tattoo



Lesson on Traditional Carvings



Activity with Lurs Bawang Ceramic Beads

I will always remember the time when Daedong Middle School received 28 exchange students from Fukuyama Secondary School, Japan. It was an interesting experience for me, a Malaysian teacher, to teach the Hornbill Feather Dance to Japanese and Korean students; I was in a class of 3 nations combined! All their teachers participated in the dance activity too. What's even more interesting is that during this lesson, we all witnessed a union of 3 nations; Japan, South Korea and Malaysia, dancing a communal, joyful dance which is usually performed on the humble verandahs of a Sarawakian longhouse. An encouraging feedback that I received was that they enjoyed the roles of both boys and girls in the traditional dances in a non-discriminating or unprejudiced way. What a lovely time we had that morning!



Lesson on Hornbill Feather Dance

How is it like teaching and learning in this era of Covid-19? I guess it's almost the same phenomena all around the world where there is a push to teach and learn via online platforms. I think that most of us teachers are now scrambling to be well equipped with technology so we could still reconnect with our students from home. We have moved from a teaching culture, to a more autonomous learning culture, and I know this teaching and learning style won't end just yet.

Although schools are now fully open in Malaysia, the new normal in education requires us to unlearn what we have always been used to do. I have asked my students to reconnect with Daedong Middle School via physical notes and letters, through this challenge. When they started the task, it was almost impossible to adhere to the rules of social distancing and I kept reminding them to keep their masks on. These letters will then be converted digitally and to be sent to my mentor.



My New School: Writing letters to Korean host school

My Previous School: Lesson on Gender Equality: Respect and Tolerance



Which reminded me of the first pen-pal letter writing activity while I was in Daedong Middle School. I started this activity in Malaysia, at my previous school. In their correspondence, they conveyed lessons of SDG 5 which was Gender Equality, which touches on empowering girls and showing respect to both boys and girls. This was a powerful lesson on acceptance and expecting a more gender-sensitized world which will reduc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girls. I also tried my best to disseminate the information by translating the important key points and aspects to the students. Emphasizing that girls and boys can respect each other, and girls can be independent and know their self worth and knowing how roles of boys and girls have significantly changed across the centuries and how important it is to respect and be more tolerable in a constantly changing world.

So the latest batch of digital letters that my new students wrote, brings messages of gratitude to Daedong Middle School for the best teaching experience that I had.



| | | | |
|-------|---------------------------------|-------|----------|
| 발신 국가 | 캄보디아 | 수신 국가 | 한국 |
| 발신 교사 | Kem Malys Krang, Prum Rotana | 수신 학교 | 순천효천고등학교 |

+

Dear students of Suncheon Hyocheon High School,
Hello, We are Malys and Rotana teacher from Cambodia! How have you been?
I really miss you. When I miss you I always watched video you that you have made and photos of us. It reminded our activities and trip.
Even though we keep in touch by social media!
It must be difficult for you to stay at home during this epidemic. I keep pray for you all.
But please remember that safety always comes first.
I wish all of you are healthy and not to stressed out at this challenging time.
I miss you a lot, and hopefully, I will see you soon!
From,
Malys and rotana

| | | | |
|-------|-------------------------|-------|---------|
| 발신 국가 | 인도네시아 | 수신 국가 | 한국 |
| 발신 교사 | Ranti Mustika Karniyati | 수신 학교 | 봉일천고등학교 |

Hello,
Selamat Pagi
Dear My Mentor Teacher Ms. Chang Ho Nam
In Bongilcheon High School - Korea

How are you? It has been so long since I came back to my country Indonesia. I hope you are healthy and safe in this kind of situation where Corona Virus still attacking in out of Countries. And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how much I miss Korea which I think about it all the time. How I miss you, how I miss the students and teachers.

There's never a happy moment where I had three months that I have spent together and by working together as we call a team. I just wish we could see each other again. First time my returning to home was so fine to see my family, but I was losing something too that I don't know I could ever get back that here.

The time when I came back from my duty at Bongilcheon High School. It was not so easy to get used to it by the culture, habit and things that I never had found here. Such as eating lunch at school, having dinner after the school has done, learning hangul and doing the project for school and also our trip to explore Korea. Oh dear I miss that so much :(

Well, I hope we still keep in touch, and I hope we could continue to work together. And maybe we can do a Penpal Project to help our students learn cultural diversity. That will be done from me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on. Stay strong and be happy always.

Sincerely,

Ranti Mustika KI

To : Ms Chang Ho Nam
School : Bongilcheon High School
Country : South Korea

From : Ranti Mustika
School : SMAN 2 Cibinong
Country : Indonesia

III
 2020. 사립 대학원 어학연수 체험
 2020.09.01 ~ 2020.10.31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2020년도 사업최종보고서

| | | | |
|-------|------------------------------|-------|--------|
| 발신 국가 | 필리핀 | 수신 국가 | 한국 |
| 발신 교사 | Princess Catherine M. Bustos | 수신 학교 | 병곡초등학교 |

My Dear Ms. Choi Jung Mee,

It has been over a year since the Asia-Pacific Teacher Exchange Program and I am missing you a lot, especially your famous line "Que sera, sera," whatever will be will be. You always mention this whenever you see me worried and anxious. For three months, **Korea**, became my home and how I love it. I miss the savory food like **tteok-bokki** and your homemade **kimchi** and I couldn't forget the cool and soothing weather of summer. I miss my daily encounter with the children, how they laughed and played, how they interacted with us. One more thing that imprinted in my mind was how patient you were with **Ye-jin, Hyong Gyu, and Sui-jin**. You taught us to "**Khidaria**" (wait) until they follow the instructions. You also mention "**Sajak**" (begin) for them to have a cue when to start. Indeed, I long to be with you again. Moreover, I would also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each of you for the warm accommodation you have accorded us.

How's life in the New Normal? Have you been in difficult situation because of the pandemic? I hope not. I am glad to tell you that I have started my Re-Application Project and it was based on my experiences in **Korea**. It is entitled **GCEd: A TOOL FOR TRANSFORMING CHILDREN IN CONFLICT WITH THE LAW**. This mainly speaks of reaching out to the clientele and turning them from a problem to a solution.

I do hope to hear from you soon and I look forward to coming back to **Korea** and meet you again.



Hogv Rizal, Science City of Munoa
Bueva Ecija, Philippines
July 21, 2020

My dear Ms. Choi Jung Mee,

It has been over a year since the Asia-Pacific Teacher Exchange Program and I am missing you a lot, especially your famous line "Que sera sera," whatever will be will be. You always mention this whenever you see me worried and anxious.

For three months, Korea became my home and how I love it. I miss the savory food like "tteok-bokki" and your homemade "kimchi" and I couldn't forget the cool and soothing weather of summer. I miss my daily encounter with the children, how they laughed and played, how they interacted with us. One more thing that imprinted in my mind was how patient you were with Ye-jin, Hyong Gyu, and Sui-jin. You taught us to "Khidaria" (wait) until they follow the instructions. You also mention "sajak" (begin) for them to have a cue when to start. Indeed, I long to be with you again. Moreover, I would also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each of you for the warm accommodation you have accorded us.

How's life in the New Normal? Have you been in difficult situation because of the pandemic? I hope not. I am glad to tell you that I have started my Re-Application Project and it was based on my experiences in Korea. It is entitled GCEd: A TOOL FOR TRANSFORMING CHILDREN IN CONFLICT WITH THE LAW. This mainly speaks of reaching out to the clientele and turning them from a problem to a solution.

I do hope to hear from you soon and I look forward to coming back to Korea and meet you again.

Love always,
PRINCESS CATHERINE BUSTOS

Wow! Congratulations, I'm happy to be an ordinary person, not a teacher, and I was too responsible as a teacher. I am now investing my passion into my happiness. I'm running a resale that runs only during the evening hours. My store is full of people with a beautiful heart, people who love flowers, people who love art, and my old disciples. I am tired of my body but happy because of the people who enjoy my cooking.

| | | | |
|-------|-----|-------|-----------------|
| 발신 국가 | 한국 | 수신 국가 | 인도네시아 |
| 발신 교사 | 권혜원 | 수신 학교 | SMA 7 Palembang |

Dear

Dear Titi, Rina and all the teachers and students in SMAN 7 Palembang

It's been a long time! How have you been?

Memories I got in Palembang are so precious that I will always remember them while I devote myself as a teacher.

After returning to Busan, I have been trying hard to share my experience and your kindness with my students.

Thanks to all the works and letters from students in 17, we felt like we can actually be connected each other.

Despite this difficult situation, life goes on and schools are adapting to this new era. Maybe we can work out more closely using online systems.

Just like my students replied to your students through Instagram DM

I miss you and all my friends in SMA 17. Let's keep in touch.

Stay healthy and safe from a difficult situation.

Sincerely,

To : Titi
School : SMA 17 Palembang
Country : Indonesia

From : Hyewon Kwon
School : Sasang High School
Country : Korea

